

원세훈사건 원점으로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제3260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2087.89	(+14.98)
코스닥	774.40	(+12.81)
금리(국고채 3년)	1.80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49.20	(+4.70)

이기면 비상, 지면 초비상



오늘 삼성주총, 가결돼도 주식매수청구권 난코스
부결땐 '이재용 체제' 흔들… 이부진 부각 가능성

삼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오전 열린다. 삼성은 이 합병안 통과에 목을 맸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이후 25년여간 진행돼온 '이재용 체제' 구축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느냐가 이번 주총 결과에 달렸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잇달아 합병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삼성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합병안이 통과돼도 안심할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권,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법정 공방 등 쉽지 않은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만에 하나 합병안이 부결되면 삼성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과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삼성물산 합병 주총은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총 안건은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제안(현물배당 추가) ▲주주제안(주총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 등 3건이다.

◆합병 가결… 주식매수청구권 10%만 돼도 한도초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가결되면 주총에 앞서 반대의사를 통보한 주주들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5월 26일 합병 계획을 공시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보통주 1주 당 주식매수청구가격은 5만7234원이다. 삼성은 주식청구권 매입대금이 1조5000억원(삼성물산 1조원·제일모직 5000억원)을 넘으면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건은 주총을 통과한 뒤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한도를 넘어 무산됐다.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합병을 진행 할 수 있었으나 합병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합병 포기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19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에 따르면 주식매수대금 조달 가능 금액은 1조원이다. 주총 전까지 반대 의견을 밝힌 지분 가운데 보통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 수가 1747만2132주(전체의 11.18%)를 넘으면 삼성물산이 조달 가능한 금액을 초과한다. 삼성물산이 발행한 보통주는 1억5621만7764주다.

관건은 삼성물산의 주가 흐름이다. 주총 후 삼성물산 주가가 폭락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16일 삼성물산 주가는 6만9300원이다. 현 시세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5만7234원보다 1만2066원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장중 변동폭이 상하 30%로 높아진 터여서 안심할 수도 없다. 현 주가에서 17.4%만 빠지면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접근하기 때문에 하루만에도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주가가 빠지지 않아도 엘리엇 등이 악심을 품으면 여전히 삼성은 코너에 몰릴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엘리엇을 포함해 33.53%다. 7.12%를 보유한 엘리엇이 외국인 지분 5%가량만 끌어 들여도 삼성물산의 주식매수 조달 가능 금액을 넘길 수 있다. 엘리엇은 우선주 합병비율 임의적 산정, 자사주 처분 등을 문제삼아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합병 부결…'이재용 체제' 회의론 대두 가능성

삼성은 공식적으론 언급을 자제하지만 이번 합병의 속내는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안착에 있다. 결국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가 목적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다. 합병이 성공하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4.06%의 삼성전자 지분을 움직일 수 있다.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까지 활용하면 이 부회장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2.18%로 확대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7.55%다.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취약한 상태로 유지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삼성물산 지분을 늘려야 하지만 상호출자금지에 걸려 계열사의 힘을 빌리기 어렵고, 상속세 등을 고려하면 삼성SDS의 지분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

상속 리스크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고시 유언장 유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돌아가는 상속 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뜻이 정확히 담긴 유언장이 있으면 이 부회장은 아버지의 상장사 지분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어머니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두 여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분을 나눠야 한다. 상속법은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을 1.5대1로 규정하고 있다. 홍 관장이 이 회장 재산의 1.5를, 이 부회장 삼남매가 1씩을 나누는 구조다. 결국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3.38%(498만5464주) 가운데 22.22%만을 확보 할 수 있는 셈이다.

3세 승계구도 자체에 어깃장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면세점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부진 사장 카드가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부진 사장에 대한 신망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관련기사 8면

한줄 News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최종심 주심 맡은 민일영 대법관.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 **포스코**는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따르면 쇄신 작업을 주도할 가치경영실장에 최정우 대우인터내셔널 기획재무본부장(부사장)을 임명하는 등 핵심 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6일 2008년 광우병 관련 내용을 보도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재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로 확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 감사원이 16일 최근 3년 동안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모두 10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부채현황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을 수립할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준비위원장에 심재철 언론학회 회장이 선임됐다.

▲ 한국신용평가는 **대우조선해양**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리고 워치리스트 하향 검토에 등록한다고 1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이 수입·제작·판매한 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환경시설 업체 11곳에 **부당 공동행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한진**은 16일 보유중이던 계열사 대한항공 지분 7.95%(579만2627주)를 전날 종가에 4.4% 할인율이 적용된 주당 3만770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 23일만에 관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으로 떠올랐다.

▲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집단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6일 '2015 아시아 개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3%보다 낮은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는 배신당했다" 그리스의회가 16일(현지시간) 새벽 재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앞서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 1만5000여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격렬한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의회 앞에 막아선 진압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일부는 그리스 국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가는 살고 국민은 죽다

그리스 재정개혁안 통과
빵·우유까지 개방 압력

그리스의회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유럽연합과 합의한 재정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제개혁과 조기퇴직 제한 등 연금제도 개혁이 골자다. 그리스 국가 자체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했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은 연금은 물론이고 빵과 우유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보호막을 잃을 전망이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사진) 총리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내분에도 불구하고 3개 야당들의 지원을 받아 재정개혁안 통과에 성공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지난 13일 개혁안 통과를 조건으로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개혁안 통과로 곧 지원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한숨을 돌린 셈이다.



반면 그리스 국민들에게는 기나긴 고난의 신호탄이 됐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채권단 측은 그리스에 시장개방과 경제개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채권단의 압박은 빵, 유제품, 의약품 등 세세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향후 지원협상에서 나타날 채권단의 압박은 이런 생필품을 파는 골목상권에 직격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그리스 골목의 빵집들은 직접 구운 빵에 13%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져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빵에는 23%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또 구운 빵에 대한 자체 표준이 확고해 외부상품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골목 빵집에 대한 보호막들이다. 우유나 의약품에도 비슷한 보호막이 존재한다. 이런 보호막들이 향후 지원협상에서 채권단의 공격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그리스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위기감은 이날 폭동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정개혁안이 통과되기 앞서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는 시민 1만5000여명이 모여 격렬한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시위현장에는 돌과 화염병이 난무했다. 그리스 국기마저 불에 탈 정도로 정부에 대한 반감은 극심했다. 공공노조는 파업하고, 약사협회는 문을 닫고 시위에 참가했다. 거리의 상인들은 맥주나 땅콩을 판매하며 시위대를 응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최경환 부총리, 내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예고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입확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산안을 곧 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추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와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 확충과 관련해 세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법인세 인상 등 세율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결손 보존을 위한 5조6000억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전망을 했고 이에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급격한 대내외 여건변화로 경제상황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경제가 회복되는 와중에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충격에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불안 등 세상사가 마음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병형 기자

朴 "8·15특사 구체적 검토… 기업인도 포함"

친박 바람잡고, 여당지도부 건의하고… 박 대통령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기업 총수 사면 검토를 언급했다. 사흘전 8·15 특별사면 단행을 밝힌 뒤로 처음이다. 당시에는 청와대 수석들을 향해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이번 언급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금년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니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이왕이면 대규모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최고위원과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사면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당의 건의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의중을 알고 당에서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 등이 청와대를 방문하기 앞서 친박근혜(친박) 최고위원들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도 (대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기업 총수 특사 명분으로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문제는 '총수 한두명을 풀어준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느냐'는 비판을 넘을 수 있느냐다. 새누리당에서는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서 최고위원은 "형평성에 맞게 사면을 하셔야 한다.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경제인들은 '이제 우리 오너가 풀려나면 여러가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느냐, 침체된 기업이 살아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박 홍문종 의원도 방송에 나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직은 어떤 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큰 기업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분들이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어 주저하느라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너의 부재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기업이 SK그룹이다. 최태원 회장의 수감 이후 SK그룹은 사업이 고전할 때면 의례 최 회장의 부재 탓을 해 왔다. 최 회장의 구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이 고전해도 싫다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최 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배경이다. 최 회장 외에도 특사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다. 유승민 정국으로 갈라진 당청관계 복원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40분간 이들과 회동 이후 따로 김 대표와 20분간 독대했다. 관례와는 달리 김 대표는 이날 독대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연합뉴스

해킹프로그램 20개 국민감시 가능할까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논란에서 쟁점은 국정원이 구매한 프로그램 수량이다. 20개로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느냐다. '국민 사찰'이라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정치공세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또 국정원 일탈의 수준과 현주소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20개를 구입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도·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량이다. 실제 이를 이용해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는 87개다. 87대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대규모를 어느 정도까지의 대규모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그 한 사람, 20명, 몇 명이 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본인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침에 눈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현대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송 의원은 국정원의 해킹에 대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냈다.

침묵하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가기로 이날 방침을 정한 듯하다.

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이에 따라 진실 규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야당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해달라. 정치 쟁점화, 정략화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공개점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손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 검찰의 수사착수를 압박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전쟁국가' 법안 일본 중의원 통과

미국 환영, 중국은 경계
日 "한국은 묵인하더라"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시킬 안전보장 관련법안이 일본 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환영을, 중국은 경계를, 한국은 묵인했다. 일본 언론의 평가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정보장 관련법안이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질의 중단에 항의해 표결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제 참의원 통과만이 남게 됐다.

통과된 법안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의 개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타국 군대의 후방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새로 만든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2개의 법안이다.

법안 통과 후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지역 및 국제적인 안전보장의 분야에서 일본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당장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분위기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일본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도발한다면 바로 보복하겠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외교부 공보관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왔다.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은 '묵인'이라고 평가했다.

/송병형 기자

리커창도 못믿는 중국의 GDP 발표

중국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0%를 두고 국제적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리 총리는 과거 랴오닝성 당서기 시절 중국의 GDP 통계에 대해 노골적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미국 CNN 머니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이 장부를 조작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리 총리가 과거 GDP 통계에 대해 "인위적"이라며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리 총리는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량, 대출 지급액 등 세 가지 통계로 경제 성장을 가늠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GDP 통계 만이 불신을 받는게 아니다. 중국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4%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서방에서는 이조차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오염 산업 등에 대한 정리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떠나온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고용했던 국영기업에서 이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병형 기자

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증거사실·범위 확정해야"

대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사진) 전 국정원장 사건 상고심에서 만장일치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파일들은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씨의 e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시큐리티 파일은 트위터 계정 269개가 기재된 핵심 증거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댓글, 트윗 등도 질서없이 무작위로 나열돼 애매하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증거 사실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을 살필 수 없다"며 "이를 다시 정하고 사이버활동 범위 또한 한정해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날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1심은 선거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 선거법 위반까지를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이후 원 전 원장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시각장애인 학생이 카메라로 찍은 세상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교사 이상봉(61)씨는 오는 18일 국내 첫 시각장애인 전용 사진갤러리 '북성동'을 개관한다. 인천 차이나타운 내 일명 '삼국지벽화 거리'에 있다. 사진은 인천혜광학교 사진동아리 '잠상'의 시각장애인 학생이 찍은 인천 풍경.

/연합뉴스

'상습 자살 시도 아버지' 말리다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석방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자살 시도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이 재판에서는 A군의 폭행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서 긴급 체포된 A군은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군의 진술과 검안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A군의 폭행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군의 국선변호인은 "A군이 목맨 아버지의 엉덩이를 붙잡고 바닥에 던졌을 때의 충격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10대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직후 충격에 빠진 상태로 말한 자포자기성 진술"이라며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은 시신을 겉으로만 보는 검안 보고서와 사망진단서, 진술만을 바탕으로 기소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검 감정서는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4월 29일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은 무려 4시간 가까이 고심한 후, 9명 중 2명만이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7명 중 1명은 존속상해 혐의만 있다고 판단했고, 6명은 가장 처벌 수위가 약한 존속폭행 혐의만 있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A군에 대한 양형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도 "A군의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심원과 같은 판단을 했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시신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도 전에 받은 아들의 진술과 시신 외관만을 보는 검안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기소한 것이 드러나 부실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홍원 기자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건보료 오른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초안은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 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정은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당정은 또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없애고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낙태·단종' 한센인에 또 국가 배상 판결

강제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6일 '강제낙태·단종'을 당한 엄모씨 등 139명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낸 소송에서 "피해자 117명에 대해 1인당 4000만원, 강제단종 피해자 22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는 국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일반의 냉대와 멸시는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되게 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는 한센인들을 엄격하게 격리하고 심한 열등감과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원회에서 피해 결정을 받지 못한 엄모씨 등 7명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7명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피해 결정을 받은 나머지 원고들의 사정에 비춰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칠곡 애생원 등에서 단종, 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이며 평균연령은 80세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선고가 나온 재판 3건에서도 법원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홍원 기자

'소유 vs 권한' 금호家 상표권 분쟁 오늘 선고

명의신탁 문서 증거 유무·상표권의 성격 '쟁점'

"소유냐, 권한이냐." 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 대한 법의 판결이 임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을 17일 열고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변경과 추가 변론 등으로 수차례 연기됐다.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 따른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시발점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본격화되자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돌연 거부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



호산업은 마찬가지로 그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 사용료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벌였다.

쟁점은 명의신탁 문서의 증거 유무와 그에 따른 해석, 상표권의 성격 등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를 형식상 공동 권리자로 등록한 계약 자체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관계는 유지한 채 관리만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얘기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상표권리는 박 회장 측에 돌아가 박찬구 측 금호석화는 밀린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금호석화는 "공동 명의 계약이 상표권 이전 등록 후 작성됐고, 계약이나 합의의 증거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상표권 공동명의를 적시한 계약과 명의신탁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다만 금호석화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대목이 금호산업의 실질적 소유를 인정했다고 보일 여지가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상표권을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쟁점이 됐다. 금호산업의 전신인 금호실업은 1972년 상호명인 '금호'를 최초로 출원·등록했다. 이를 근거로 박삼구 회장은 상표가 금호산업의 소유라는 주장이다.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은 사용 권한의 문제이지 소유권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양측의 항소 여부도 관심이다.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그간 아시아나항공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표이사 선임 무효 소송 등 사사건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잇단 소송에서 박찬구 회장이 패소한만큼 항소심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문턱 낮아진 헌재… 25년 간 사건 5배 증가

지난해 접수 총 1969건 달해 개인 청구 '헌법소원' 대부분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최상위법이라는 다소 무거운 인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으려는 대중들의 의식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사건은 1969건에 달한다. 1989년 425건에 불과했던 사건 접수가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1988년 9월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총 2만7620건의 사건 중 개인 청구 헌법소원은 2만6000건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권리 구제를 청구한 사례도 꾸준히 늘었다. 2003년 1000건을 돌파(1018건)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144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5월 말까지 599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시발점으로 한다는 평가도 거론된다.

최근 헌재는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놓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이다. 헌재는 15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병합해 지난 2월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다.

낮아진 문턱만큼 부작용 우려도 있다. 전자접수 도입으로 신청이 간편해 지면서 소송남발 우려가 커진 것. 자신의 권리가 헌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정부, WHO 기준보다 빠른 내달 2일 '메르스 종식' 검토

방역 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일보다 빨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자체 종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역 당국은 마지막 확진자 발생일인 4일을 기준으로 28일 뒤인 다음달 2일을 메르스 종식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WHO는 최종 환자가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낸 날짜를 기준으로 4주 뒤를 종식일로 삼는 안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현재 메르스로 치료중인 환자 가운데 2명은 여전히 메르스 바이러스에 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WHO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나름의 기준을 WHO에 설득하고, 위기경보단계를 하향조정해서 종식 선언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10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강동경희대병원이 11일 0시를 기해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종식일은 방역 당국의 기대보다 훨씬 늦춰져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된다.

당국은 WHO 기준과는 별도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낮춤으로써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 수준으로, 한 단계를 내리면 가장 낮은 '관심' 수준이 된다.

권 반장은 "보건당국은 WHO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위기평가회의 등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메르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총 17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최종 음성을 나타내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메르스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후유증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상해보험금 전액 받으려면?

생활 법률

회사원 나모씨는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따르던 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나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나씨는 그 길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지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지급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금은 20%가 감액된 채 지급됐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나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지급한 금액이었다. 나씨가 상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 나씨가 자동차보험을 들을 당시 인보험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란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주차 등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이 보험은 사람이 다치는 인사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해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면책범위로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물지 않는다. 당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액이 감액되는 일반 손해보험과 다른 점이다. 나씨가 손해보험만 들었다면, 안전띠를 매지않은 잘못이 적용돼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감액된다는 말이다.

/이홍원 기자 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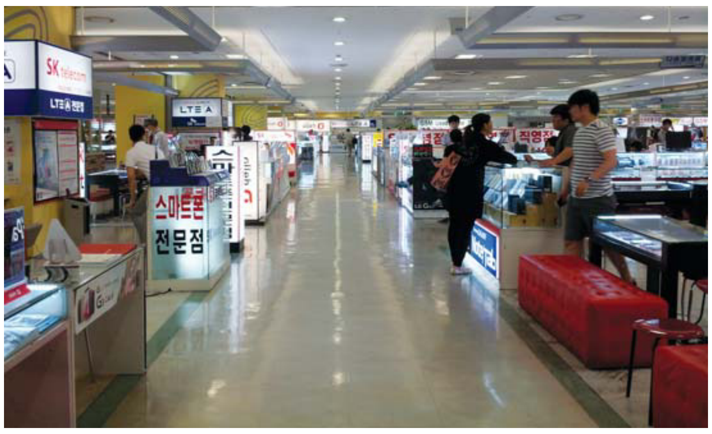
단통법 시행 9개월

개인유통점 '울고' 이통사만 '웃었다'

소비자 구매 행위 줄고 경영 환경 더 어려워져 중소 유통점 폐업 속출

이통사 운영비 줄어 수익↑ 온라인 직영점 확대까지

정부가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행위가 축소됐고 그에 따라 개인판매자들은 손님이 줄어들어 시장이 침체됐다는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오히려 마케팅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어났다. 이에 더해 운영비가 적게 드는 온라인 직영점을 강화하고 있다.



손님이 없어 한산한 휴대폰 판매점.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번호이동 건수는 152만3500건으로 2005년 4분기(132만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또한 단통법 시행전인 지난해 2분기의 번호 이동 건수 보다 28.6%가량 줄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179만건과 161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95만3855건을 기록해 건수가 다소 높아 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번호이동 수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단통법 시행 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꾸준히 30%를 밑도는 추세다. 특히 지난 4월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21.2%로 단통법 시행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번호이동 건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0만건 이상이었다. 하지만 4분기 단통법의 영향을 받은 2014년의 경우 865만건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347만735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올해 번호 이동건수가 700만건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4만여개에 달하던 휴대폰 유통점이 4월말 현재 3만여개로 줄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중소 판매점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8.9%가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0.5%는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응답해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 협회는 자체 분석을 통해 중소 판매점의 약 3분의1이 폐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의 수혜자라는 견해가 많다. 높은 단말기 보조금을 앞세워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마케팅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1분기 2조 4265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 465억원으로 줄었다. 1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총 782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871억원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운영비도 적게 들고 관리가 쉬운 직영 온라인몰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판매점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통사 중 KT 경우 당초 지역 기반 우수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온라인몰 '올레샵'에 오프라인 매장을 입점시켰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사 직영몰을 우위에 두고 각종 할인혜택을 강조해 허울뿐인 상생에 그치고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소상공인 "사상 초유 폐업위기"

메르스·최저임금 원인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소상공인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상 초유의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사업 ▲징수 과태료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 예산 편성 ▲소상공인 이용 캠페인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최저임금지원사업은 시간제 근로자를 정직원 채용형태로 전환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김문식 협회 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6030원)이 8년 만에 최고치인 8.1% 인상됐다. 이는 대다수 소상공인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문제에 대해 "업태상 소방법·건축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들이 많은 과태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이로 확보된 재정을 소상공인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단속 카메라 설치와 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태료 수익은 25%나 증가했다. 최승재 협회장은 "이제라도 점심과 저녁 불법 주차 단속을 없애 국민들이 소상공인 업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더한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정책도 강하게 지적됐다.

협회는 약 2만8000명의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동대문시장 인근에 5곳의 기업이 면세점 사업 입찰 신청을 했지만 1곳도 낙찰받지 못한 사례를 들며 "대기업 밀어주기 면세점 운영이 확실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김임용 협회 수석부회장은 "메르스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고통받으며 사상 초유의 폐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출만 권유하는 정책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협회장은 "대기업과 투기자본이 지역상권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부가 소수에 편중되고 있다"며 "소수가 아닌 다 같이 잘사는 지역경제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각종 규제 완화… 은행권 해외진출 돕는다"

금융위, 사업지원 방안 발표 20억불 해외 SOC펀드 조성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림자 규제와 건전성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개혁키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외교채널을 확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 미얀마 등 주요국 금융당국과의 정례회의를 추진하고 해외 금융당국에 금융정책 자문관 파견, MOU체결 등을 통해 당국간 공식협의채널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매 분기 '해외진출지원 정례회의'를 개최해 핵심관리 대상국 선정과 주요행사 현황 공유,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SOC펀드도 마련된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오는 8월 KB국민·우리·신한·외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SOC펀드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해외SOC 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新수익원 창출을 위해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해야 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계기로 해외SOC 금융시장을 통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과 회신방식을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현지 시장조사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 영업 확대를 위해선 금융지주회사의 회사형 공모펀드의 최소 지분율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과 인력운영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회사 자율·책임 확대를 위해선 현지화 평가제도를 컨설팅 기능 위주로 개선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교육,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개혁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면서 "그림자규제와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소비자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꼽았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Daishin
House
View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건자재株, 업황 호조 기대감에 '고공행진'

주택 분양시장 회복에 리모델링 늘어
이란 핵협상 타결로 페인트도 '재평가'

| 마켓인사이트 |

'건자재주'가 업황 호조로 하반기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에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국내 주택 분양시장 회복으로 건자재 수요가 늘어난 데다 원자재값이 떨어져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시멘트의 주가는 전일대비 4.72% 오른 2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페인트(2.29%)와 노루페인트(1.96%), 조광페인트(3.43%), 퍼시스(3.61%)의 주가도 상승세에 동참했다.

증권가에서는 "최소 2년간 건자재 시장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건자재 업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최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건자재 출하량도 증가할 것"이라며 "오는 2017년까지 건자재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건축자재 시장은 지난해 보다 18% 증가한 2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내년엔 31조원, 2017년에는 37조원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채상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시멘트, 레미콘 등 공시가격이 있는 건자재의 가격 상승 압력이 높고 마감자재 전반에 평균판매단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현대페인트 홈페이지 캡쳐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도 건자재 업체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리모델링하려는 수요와 함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국내 건자재시장 규모가 올해 26조원에서 내년에는 31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슈 역시 건자재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열매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란 핵협상 타결 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 원유 생산량이 증가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료비 하락 효과가 예상되는 '건자재주'를 선호주로 꼽았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란이라는 중요한 원유 공급원이 등장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주요 원재료인 톨루엔, 자일렌, 벤젠 등이 하락함에 따라 페인트업체들이 원가 절감 수혜를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페인트업체들은 다른 건자재주에 비해 그동안 저평가 '설움'을 받아왔다.

조광페인트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9배, 노루페인트는 11배로 추정된다. 이는 KCC, 한샘 등 다른 건자재주의 PER 15~80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유가가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페인트주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삼성그룹 강세'로 2080선 돌파

코스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망에 상승

코스피가 삼성그룹주의 강세에 힘입어 2080선을 가뿐히 돌파했다.

16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98포인트(0.72%) 오른 2087.8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가 상승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합병안 통과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삼성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사자와 팔자를 반복하다 결국 10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도 424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세를 지지했다. 반면 개인은 427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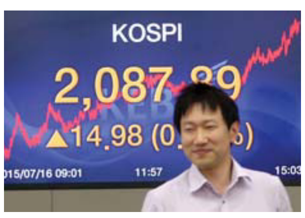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가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269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의료정밀(5.29%), 섬유·의복(4.18%), 비금속광물(3.14%), 전기·전자(2.80%), 종이·목재(2.32%), 은행(2.23%) 등은 상승했다. 반면 의약품(-2.57%), 음식료품(-1.13%), 통신업(-1.09%), 철강·금속(-1.07%)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그룹주의 강세가 돋보였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3.81% 상승한 것을 비롯해 제일모직



16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14.98포인트(0.72%)오른 2087.89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5.72%), 삼성에스디에스(9.35%), 삼성물산(3.43%) 등이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0.38%), 현대차(0.40%), NAVER(0.33%) 등도 올라섰다.

반면 한국전력(-0.31%), 아모레퍼시픽(-1.00%), SK텔레콤(-1.76%)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도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12.81포인트(1.68%) 오른 774.40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 9일(779.04) 이후 7년8개월 여만에 최고치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3억원과 512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732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51개 종목의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대금은 24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6원 오른 1149.2원으로 마감했다. /김민지 기자

합병 부결 시 삼성물산 주가 "폭락" "반등" 예측 상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임박하면서 삼성물산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다수의 증권사가 이미 '합병 성공'이 삼성물산에 득이 될 것이란 전망을 앞 다퉈 발표한 가운데 한화투자증권만이 이에 반하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3.43%(2300원) 오른 6만9300원으로, 제일모직은 5.72%(1만500원) 상승한 19만4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의 동반 상승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합병 가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분위기를 삼성의 승리로 몰아갔다.

서울고등법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삼성에 힘을 실어줬다.

엘리엇은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증권가 대다수 "합병 무산→폭락" 전망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이 일반투자자에게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 14일 "삼성물산이 합병에 성공할 경우 통합 삼성물산의 목표주가는 9만2000원이 가능하다"며 "합병이 부결되면 합병발표 이전 주가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물산이 합병계획을 공시한 지난 5월 26일 직전일의 주가는 5만5300원이다.

백 연구원은 합병이 무산되면 △실적악화 △현물배당 등 일부 요구사항 관철의 현실적 어려움 △헤지펀드와 소액주주의 이익방향성 불일치 가능성 등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제시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이 무산되면 엘리엇의 추가 지분 매입 기대감과 경영권 분쟁 요인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궁극적인 영업가치 개선 없이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병 무산은 삼성물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현대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가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증권 "삼성물산 주가, 되레 오른다"

반대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8일 "합병무산 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현재보다 40%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차익실현할 것을 조언했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기준가 5만5000원은 적정가치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1대 0.35의 합병비율을 최소 1대 0.52로 끌어올려야 합병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번 합병이 무산되고 재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대체로 ISS의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다수 외국인이 이번에도 ISS의 합병 반대 의견을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번 합병의 특수성을 고려해 17일 주주총회 참여의결권을 평소 70%보다 높은 80%로 가정할 때 엘리엇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지분율 26%)의 80%가 반대하면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의 향방과 상관없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대우조선 부실 예고에 금융권 '전전긍긍'

국내은행 위험노출액 21조7000억원
구조조정·충당금 부담 등 파장 우려

금융권이 대우조선해양발(發) 악재에 떨고 있다.

올 2분기 대우조선에 최대 3조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전망되는데다 워크아웃 추진설과 부실은폐 의혹이 나오며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의 워크아웃 추진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채권은행 등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과거 해양플랜트 건조와 관련한 실행예산 증가 등으로 상당 규모 적자 시현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이에 채권단에서는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나 출자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손실로 급등한 부채 비율과 유동성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대우조선은 당장 오는 23일 20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11월30일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우려 대상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확정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은 지난 9일 기준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 위험노출액을 보면 수출입은행이 12조5000억원, 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4조1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이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총 1조95억원, 국민은행 8966억5000만원, 우리은행 5468억6000만원, 신한은행 4087억5000만원 순으로 높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897억7000만원, 부산·경남은행은 461억6000만원, 광주·전북은행이 266억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구조조정 추진 여부와 은행권 충당금 부담 확대 가능성이 금융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 사태가 은행(지주) 업종의 이익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 잠재 부실과 관련한 주가 하락은 지나쳤다"며 "개별 은행(지주)의 손실을 추산하더라도 전일 시가총액 하락분을 크게 하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우조선해양 자체 노력이 선행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채권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율협약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채권단은 추가 담보를 확보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자율협약을 맺을 경우 충당금 부담은 합산 연간 순이익의 2.7% 수준"이라며 "가장 높은 경우에도 하나금융이 5.9% 정도고 우리은행과 KB금융은 각각 4.0%, 3.4% 정도"라고 추산했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은행별 익스포저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와 추가 충당 규모 등은 향후 채권단 협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는 단계"라고 판단했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전날 "현재 시점에서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추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실사에 착수했다.

산업은행 측은 "실사 결과,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협의 하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은행별 대우조선해양 익스포저 (단위: 백만원)

은행	대출채권	유가증권	확정지급보증	합계	추가 충당금 10% 가정
하나은행&외환은행	703,196	0	306,314	1,009,510	100,951
국민은행	374,594	0	522,057	896,651	89,665
우리은행	396,314	5,410	145,133	546,857	54,686
신한은행	116,925	0	291,822	408,747	40,875
기업은행	89,774	0	0	89,774	8,977
부산은행&경남은행	15,968	30,191	0	46,159	4,616
광주은행&전북은행	0	26,598	0	26,598	2,660
대구은행	0	0	0	0	0

주: 신용공여액 합계에서 환매조건부채권, 미확정지급보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외 (2015.7.9기준)
자료: KIS Line,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NH투자증권



수출입은행, 에콰도르 상수도사업 완공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에서 '산토도밍고市 상수도 공급시설 확장사업' 완공식이 열렸다고 16일 밝혔다. 상수도 공급시설 확장사업은 한국 기업의 수(水)처리 기술로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의 취수장과 정수장을 확장하고 송배수관을 신규로 건설한 프로젝트다. 수은은 이에 따라 30만명의 산토도밍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 에콰도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신한銀 "공공물품 납품업체, 판로·유동성 지원"

소형 교복업체를 운영중인 김모(45세)씨는 최근 A고등학교에서 공고한 교복납품업체 선정에 낙찰됐다. 하지만 물품제작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자금조달과 관련해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다. 이에 김 씨는 신한은행 신내동 지점에서 대출상담을 받게 됐고 상담직원이 상품을 제안, 신상품을 개발하게됐다.



16일 신한은행은 공공물품 납품 소상공인을 위해 '신한 공공물품 납품지원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김 씨의 사례처럼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납품업체에 판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교복납품업체의 효율적인 금융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위해 지난 15일 ㈜스쿨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물품 납품과 관련된 추가 협약 체결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 공공물품 납품지원대출'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구매처에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신한은행 신용등급이 BB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대출기간은 1년 이내 한도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최고 연 0.3% 특별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구매처에 안정적으로 물품 납품을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한화생명, 쪽방촌에 '안심 냉장고' 전달

한화생명이 지난 15일 대전시 정동에 위치한 쪽방촌 독거어르신들에게 안심 냉장고 35대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장마와 폭염 등에 음식물 변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독거어르신들은 주 2~3회 관할 동구노인복지관으로부터 밑반찬 등을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냉장고가 없거나 노후화돼 여름철 식중독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태였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봉사자 30여명은 쪽방촌의 좁은 입구로 직접 냉장고를 들고 방문해 설치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접 준비한 밑반찬과 과일,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활동도 펼쳤다.

김현상 중부지역본부장은 "한화생명은 6년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연탄 나눔, 건강검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나눔 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화생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생명 중부지역본부는 매년 겨울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연탄 1만여장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30여명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여명의 독거노인들께 건강검진도 실시했다. 안심냉장고도 지난해 35대 전달한 데에 이어 2년째 후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분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생명존중사업도 실시하는 등 생명보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



김현상 한화생명 중부지역본부장(앞줄 가운데),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대전 동구 노인복지관 장연식 관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15일 대전 쪽방촌 독거어르신들에게 '안심 냉장고'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분양훈풍에 다시 불붙은 '마천루 프로젝트'


국내 주거용 건축물 중 최고 높이로 지어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조감도.

高분양가 논란 잠재우려 합리적 가격 책정안 추세

금융위기 이후 자취를 감췄던 초고층 아파트가 올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업성이 맞지 않아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초고층 프로젝트들이 분양시장 훈풍에 힘입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추진 단계서부터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이 8년 만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포스코건설은 엘시티PFV와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타워 2개 동으로 구성된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국내 주거용 건축물 중 최고 높이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지난 2011년 입주한 80층 높이의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다. 주거부문 기준 세계에서 8번째, 아시아에서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다음으로 '해운대 아이파크'로 최고 72층이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3차'와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1차'다. 각각 69층이다.

이 같은 초고층 아파트는 우수한 조망권과 일조권을 갖춘 데다, 눈에 띄는 높이와 외관으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건설사는 기술력을 상징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입주민은 시세를 선도하는 아파트에 살 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인기다.

이에 70~80층은 아니더라도 40층을 넘는 초고층 아파트의 공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내달 경기도 용인 기흥역세권지구 3-1블록에 선보일 '기흥역 더샵'은 최고 층수가 47층이다. 또 인천 송도국제도시 RM2블록에 짓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도 47층까지 지어진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C3블록에 공급한 '광교 아이파크'는 최고 49층까지 올라간다. 광교호수공원이 바로 앞이라 일부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GS건설이 경기도 부천 상동에 공급한 '상동 스카이뷰 자이'는 최고 45층 높이다. 국철 1호선 송내역 초역세권 단지로 405가구 모두 수요층이 두터운 84㎡로 구성됐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서 공급 예정인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는 안산에서 최고층인 47층으로 계획됐다.

또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서 동인1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에 나선 '시청앞 퍼스트시티 더 클래식'도 46층의 초고층이다.

초고층 아파트의 인기와 함께 신규분양도 늘었지만 높이만큼 비싼 가격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아파트 중 최고층이 될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벌써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을 높게 올릴수록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초고층 아파트가 사라진 이유가 고분양가로 인한 인기 하락이었던 점을 감안해 최근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영등포·길음 등 15곳,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 "재산권 행사·다양한 대안사업 추진 가능"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길음·도봉·상도 등의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을 잇달아 해제했다.

영등포에서는 영등포동7가 1-1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15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곳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다수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 해제 추진을 원하고 있어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도 해제했다.

이 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성북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시는 또 도봉구 도봉동·방학동·쌍문동·창동 일대 9곳과 동작구 상도동·사당동 일대 4곳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결정했다. 이들 구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던 곳이다.

서울시는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재난안전연구원, 지반침하 실증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16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수도관과 도로 등 지하구조 모형을 설치해 싱크홀(지반침하) 실증실험을 했다. 심기오 연구관(오른쪽)이 모형을 활용한 지반 침하 현상을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다리타기 입찰담합' 건설사, 과징금 34억

삼호·코오롱·벽산 등 11곳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등 정부가 발주한 6건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1개 업체에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효성엔지니어링,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휴먼텍코리아 등이다.

이 중 벽산엔지니어링과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한라산업개발 등 4곳은 2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0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투룰 등을 합의했다.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부문에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다리타기로 결정했다. 또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총 34억71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2건씩 담합에 가담한 한라(8억4700만원), 벽산(6억3100만원)의 과징금이 가장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SK건설, 출산·육아 지원 모성보호제도 확대 시행

난임 휴직제 도입

SK건설은 여성 구성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전면 도입해 실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주요 건설사 중 여성 구성원 비율이 10%로 최고 수준인 SK건설이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도적으로 모성보호제 전면실시에 나선 것이다.

우선 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간단축근로제를 활성화하고자 모성보호 신청자에게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지급함으로써 임신 사실을 알리는 한편, 신청자가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은 직책자는 미실행 사유 보고 등 제지를 받는다.



SK건설 구성원들이 새로 전면 도입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 /SK건설 제공

또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구성원은 인사평가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적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직책자가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임원에게 결재를 받고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출산·육아 휴직에서 돌아와서는 원래 소속팀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 준다.

아울러 한 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한 난임 휴직제를 새로 도입해 여성 구성원들이 난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

현대기아차, 유럽 점유율 올들어 '최저'

지난달 판매량 늘었지만 시장 점유율 5.6%
경쟁사 대대적 판촉경쟁 등 물량공세 영향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유럽 시장 점유율이 5%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하며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신차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판촉에 나서면서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6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7.4% 늘어난 4만2231대를, 기아차는 8.2% 증가한 3만6302대를 판매했다.

두 업체 모두 판매실적이 늘었지만 지난달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 증가율(14.8%)에 못미치면서 시장 점유율은 뒷걸음쳤다.

현대·기아차를 합친 지난달 점유율은 5.6%로 전년 같은 기간(5.9%)보다는 0.3% 포인트, 전달(6.2%)보다는 0.6% 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다.

두 업체의 점유율은 1월 5.8%와 2월 5.9% 수준이었으나 3월 6.1%로 반등했다. 그러나 4월에 5.9%로 하락하며 주춤한 뒤 5월에 6.2%를 기록하며 다시 6%대로 올라섰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하락은 경쟁업체들이 대대적인 판촉경쟁을 벌이며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그룹(17.2%)과 PSA그룹(12.8%), FCA그룹(17.7%), 포드(16.0%), BMW그룹(15.2%) 등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현대·기아차는 전년 상반기보다 7.9% 증가한 43만7259대를 판매했다.

상반기 점유율은 현대차 3.2%, 기아차 2.7% 등 5.9%를 기록해 전년 상반기와 같았다.

특히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에 7.6% 증가한 20만38대를 판매해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차종별로는 스포티지(사진)와 씨드가 기아차 유럽 판매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는 상반기 5만6002대가 팔려 12.0% 증가했다.

씨드 역시 4만90대가 팔리며 유럽 실적을 이끌었다.

씨드는 2006년 생산된 이래 지난 5월 9년 만에 누적 100만대 생산을 돌파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LG 무선 오디오, 美·英서 잇단 호평

스타일·사운드 매력 넘쳐



홍보 모델이 LG전자 무선 오디오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자사 무선 오디오가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술(IT) 전문매체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영국 IT전문매체 'AV포럼(AVForums)'은 'LG 사운드 바'(모델명: LAS750M)에 대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며 "견고하고 묵직한 저음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풍부한 음질을 제공한다"고 호평했다.

또 'AV포럼'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2개 이상의 제품을 활용해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멀티룸 기능을 호평했다. 멀티룸은 여러 대의 스피커를 메쉬 네트워크 기술로 연결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스피커에서 동시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다.

영국의 전자제품 리뷰 전문 매거진 '엑스퍼트 리뷰(Expert Reviews)'는 'LG 스마트 오디오'(모델명: NP8740)에 대해 "만족스러운 깊이의 소리와 놀라울 정도로 넓은 음역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유력 IT전문 매체인 '더버지(The Verge)' 역시 'LG 스마트 오디오'에 대해 "모든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음질을 제공한다"며 "구글 캐스트를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제품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해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전했다.

/조한진 기자 hjc@

LGD, 대형패널 누적 생산 15억대 최초 돌파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한상범)는 세계 최초로 대형 LCD와 OLED 디스플레이 생산 누적 15억대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995년 8월 처음으로 대형 LCD 패널을 생산한 이래 19년 11개월만에 달성하고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달성한 실적이다.

15억대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대략 2억3679만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53배에 이른다.

LG디스플레이의 이러한 기록은 적기 투자에 의한 안정적인 공급 능력 확보,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 강화, 그리고 고객 밀착 지원을 위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월 6만장 규모(유리원판 투입 기준)로 양산을 시작한 중국 광저우 8세대 패널 공장을 올해 상반기 월 9만장으로 확대했다. 내년 말까지 12만장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또 올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대형 OLED 생산라인인 파주 E4 공장도 연말까지 월 2만6000장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LG디스플레이의 대형 패널 생산능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은정 기자 eunj71@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대형 패널 누적 생산 15억대 돌파를 기념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인재 발굴 나서

'주니어 SW 창작대회' 개최



삼성전자는 다음달부터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미래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가족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참가를 원하는 학생과 교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와 프로토타입을 다음달 17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www.juniorswcup.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초(4학년 이상)·중·고 학생이라면 개인(1인) 또는 팀(2~3인)을 구성해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9월 중 예선 60팀을 선발해 소프트웨어 특강과 임직원 멘토링을 제공하는 부트캠프를 열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11월 13일 대상 2팀, 최우수상 6팀, 우수상 6팀, 지도교사상 2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팀에는 총 5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과 상용화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팀 전원은 내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 초대돼 수상작에 대한 발표와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임은정 기자 eunj71@

아시아나, 中 관광업 관계자들과 '명동걷기'

아시아나항공은 16일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명동걷기 행사를 가졌다.

아시아나항공과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 100명은 이날 오전 중국 전지역 대표 여행사 사장단 150명과 언론인 40명, 파워블로거 10명 등 200명의 방한단과 명동일대를 둘러봤다.

이번 행사에는 조규영 아시아나항공 여객본부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호준 새정연 국회의원, 권희석 하나투어 부회장, 김병태 서울관광마케팅 사장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한국, 매력적인 서울' 구호를 외치며 명동예술극장을 출발해 30분간 명동 일대를 돌아본 후, 명동역에서 '아시아나, 서울 사랑해요' 합성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정용기 기자




16일 서울 반포동 세빛섬에서 열린 페라리 488 GTB 출시행사에 디터넥텔 페라리 아시아극동지역 총괄지사장이 첫 내한해 차를 소개…했다.

페라리, 8기통 '488 GTB' 한국 상륙

디터 넥텔 "급성장하는 韓시장, 기대하고 있다"

페라리는 16일 서울 반포동 세빛섬에서 '페라리 488 GTB'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이날 한국을 첫 방문한 디터 넥텔 페라리 아시아극동지역 총괄지사장은 "페라리 488 GTB는 동급 최강의 성능과 즉각적인 응답성으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할 모델"이라며 "급성장하는 한국시장에서 488 GTB를 통해 페라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라리 488 GTB에는 더 정교해진 다이내믹 컨트롤을 통해 강력한 엔진의 힘을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새롭게 개발된 3902cc V8 터보 엔진은 토크를 최적으로 분산시키는 가변 토크 매니지먼트를 적용한 7단 F1 듀얼-클러치 기어와 결합해 강력한 힘을 낸다. 458 GT 모델보다 50% 향상된 다운포스가 공기역학 효율지수(측력계수/공기저항계수)를 양산된 페라리 차량 중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시속 250km 주행 시 총 다운포스는 325kg 수준이다.

페라리 488 GTB는 최고출력 670hp/8000rpm, 최대토크 77.5 kgm/3000rpm의 V8 터보 엔진이 탑재됐다.

제로백(정지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3초다. 시속 0km에서 200km까지는 8.3초가 걸린다. 200km/h에서 완전히 멈추는 거리는 117m 수준이다.

가속페달반응시간은 0.8초, 기어반응시간은 0.06초에 불과하다. 국내 출시 가격은 3억원 중반부터 색상과 휠 등 옵션에 따라 4억원대까지 책정됐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G4' 유튜브 홍보영상 조회수 1000만 돌파

LG전자는 지난달 'LG G4' 글로벌 출시를 맞아 공개한 유튜브 홍보 영상 5개의 누적 조회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홍보 영상은 미국, 브라질, 터키 등에서 공개됐으며 고정 구독자 수가 100만명에서 600만명에 이르는 현지 유튜브 스타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제작한 'G4' 홍보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도 안돼 전작 'G3' 유튜버 홍보 영상 누적 조회수 800만 건을 가볍게 제쳤다.

이번 행사는 유명 유튜버가 'G4'의 특장점을 자신만의 에피소드로 풀어낸 영상으로 고정 팬들에게 재미와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친숙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의미가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사 CEO, 여행사진가, 영상제작자 등 직업과 관심사도 다양한 5명의 유튜버(미국 듀드퍼펙트/알렉스샤콘, 브라질 바비사스/펠리페네토, 터키 오하디요룸)는 세계 최고 라크로스(하키와 비슷한 북미 인기스포츠) 선수의 묘기 샷, 거대한 공기 풍선을 입고 경기하는 버블 축구 경기 중계, 그랜드캐니언·유타 국립공원 등 미국 대자연을 배경으로 만든 셀피 촬영 여행기, 쉽고 재밌는 셀피 촬영 노하우 소개 등 자신의 영상에서 'G4'의 카메라·디자인·화질을 체험하고 상세히 소개했다. /임은정 기자

'삼성 UHD TV' 북미·유럽 시장 점유율 1위

美 전문 매체, 만점 부여
英 SUHD 전 모델 추천

삼성전자는 올 들어 북미와 유럽의 UHD TV 시장에서 50%를 넘는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5월까지 북미 UHD TV 시장에서 53.5%의 점유율(NPD 매출기준)을 기록했으며 유럽에서도 50.0%(GfK 매출기준)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북미와 유럽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 구매의 기준이 되는 현지 전문매체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TV 전문 평가 매체인 'HDTV 솔루션'은 SUHD TV(JS9500)에 5점 만점을 부여하며 "완벽한 UHD TV를 찾고 있다면 삼성 SUHD TV를 가장 먼저 고려하라"고 극찬했다.

미국의 '4K.com'은 삼성 JS9000 모델과 보급형 모델인 60JS7000에 최고 평점인 'A'를 부여하며, SUHD TV의 나노크리스털 기술을 'TV 시장의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HDTV test'는 SUHD TV 전모델(JS9500·사진)을 '적극 추천 모델'로, 65인치 JS9500은 '동급 최강 모델'로 선정했다.

영국의 '왓 하이파이'는 JS8500에 대해 별 5개 만점을 주고 "SUHD TV의 S는 아마도 성공(Success)의 S이거나 특별한(Special)의 S를 의미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기아차, 신형 K5 출시기념 '방문 이벤트'

기아자동차는 신형 K5 출시를 기념해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31일까지 경품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전시장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500명)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아이스크림(500명) 경품을 증정한다.

방문 고객 전원에게는 편의점 상품권(2000원)을 선물한다. 또 선착순으로 신형 K5의 듀얼디자인 모델이 그려진 비치발리볼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홈페이지(http://www.kia.com)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전시장을 방문해 직원에게 이벤트 응모를 신청하면 된다.

이벤트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삼성전자, 레이저 프린터·복합기 신제품 내놔

삼성전자는 컬러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 'C430·C480 시리즈'를 16일 출시했다.

'C430·C480 시리즈'는 프린터와 복합기의 설치와 관리의 편리성을 우선순위로 꼽는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USB 연결이나 CD 드라이버 없이도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한 'C430·C480 시리즈'는 NFC·모바일 프린팅·클라우드 프린팅 등을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프린팅 기능을 탑재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의 컬러 보정 기술인 ReCP(Rendering Engine for Clean Page)와 중합 토너를 적용해 부드러운 선 처리와 선명하고 반짝이는 컬러 구현이 가능하다.

최대 800MHz CPU를 탑재한 '이 제품은 고품질 출력 등 다양한 문서에 대한 빠른 인쇄를 제공해 업무 처리 시간을 줄여주고, '스캔 파일 이메일로 바로 보내기' 기능도 갖췄다.



삼성전자 고성능 컬러 레이저 프린터·복합기 'C430·C480 시리즈'. /삼성전자 제공

특히 원터치 에코 버튼을 누르면 구현되는 에코모드는 ▲토너절약 ▲양면출력 ▲모아 찍기 ▲빈 페이지 출력 안 함의 4가지 모드를 사용자 환경에 맞춰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임은정 기자



금강산리조트
창사25주년 특별분양
제주도와 동해바다 금강산까지
395만원에 별장을...
소유권 등기로 안정성, 법인 무기명 카드 발급
그 곳에 가고싶다.
동해안 최북단 해금강으로 가는길..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초대합니다.
회원특전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1. 100% 소유권이전등기
2. 연간 30일 사용
3. 전국 9 지역 리조트 정회원대우 사용
4. 무료숙박 15매 증정
5. 10년후 100% 반환
6. 해외 골프장 회원대우(필리핀세부,중국청도)
신청금 50만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 244-025348-04-029 ㈜미봉
※신청금 입금순으로 소유권 등기 바닷가 객실 배정합니다.
*본 회원권은 이용권이 아니며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분양승인을 받은 정식 리조트 회원권 입니다.
강원도 고성 금강산리조트(229 객실) 실제 전경입니다.
제주 금강산 리조트
부산 해운대 리조트
도고 리조트
설악 리조트
지리산 리조트
나주 스파 리조트
경주 리조트
금강산리조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4 남도빌딩 5층 (주)미봉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韓·中·日 1위 통신사, 5G 시대 협력 논의

SK텔레콤 'GTI 서밋 상하이 2015'에 참석
차이나모바일·NTT도코모와 기술 공유

한·중·일을 대표하는 1위 통신사가 한 자리에 모여 5G 네트워크 청사진과 변화할 미래상에 대해 논의했다.

SK텔레콤은 16일 중국 1위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이 주최하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후원한 'GTI(Global TDD-LTE Initiative) 서밋 상하이 2015'에 참석해 4G 기술 개발 성과와 선도적인 5G 기술 개발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푸동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차이나모바일 시궈화 회장, 크레이그 에를리히 GTI 의장, 앤 부베로 GSMA 사무총장을 비롯해 일본 1위 통신사인 NTT도코모 CTO(최고기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진성 SK텔레콤 CTO는 기조연설에서 국내 무선통신 역사를 선도해온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운용 노하우와 4G 기술 개발 성과, 5G 핵심 기술 등의 설계방식(아키텍처)에 대해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7월 LTE를 상용화 한 후 2012년 멀티캐리어, 2013년 LTE-A, 지난해 광대역 LTE-A등 선진적으로 기술을



최진성 SK텔레콤 CTO가 중국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이 주최한 'GTI 서밋 상하이 2015'에 참석해 4G 기술 개발 성과와 선도적인 5G 기술 개발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내놓으며 세계 LTE 기술의 진화를 이끌었다. 특히 '3 밴드 LTE-A' 의 경우 광대역 LTE-A 상용화 이후 6개월만에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최 CTO는 "5G 시스템 구조는 '혁신적 서비스·플랫폼·초고속 인프라' 3개 체계로 분류된다"며 "5G가 상용화되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를 통한 실감나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체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홀로그램이나 무(無) 안경 방식 3D 영상 등 서비스를 예로 들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최 CTO는 "SK텔레콤은 5G 세부 네트워크 구조와 청사진을 국제 무대에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등 5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시아 대표 통신사는 물론 글로벌 ICT 리더들과 함께 5G 기술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NHN엔터테인먼트 사업다각화

신사업 발굴로 종합 IT기반 서비스 업체로 도약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는 급변하는 IT환경에 맞춰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해 종합 IT기반 서비스 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주력인 게임 사업을 유지하면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간편결제에 이어 CCTV 시장 등에 뛰어들며 비(非)게임 분야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NHN엔터테인먼트는 16일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고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IP 카메라 '토스트캠'을 공개했다. 토스트캠은 일종의 CCTV와 유사한 개념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토스트캠은 아날로그 방식의 CCTV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와이파이(Wi-Fi) 기반의 IP 카메라다. 기존 CCTV보다 저장 용량이 크고 고해상도 화질,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된 토스트캠에서 촬영된 영상을 이용자는 언제 어디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트캠은 1년 내내 촬영한 영상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 기능, 도난·파손·분실돼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저장, 소리·움직임 등 특정영역 감지 등의 기능을 담았다.

하태년 NHN엔터테인먼트 미디어기술랩 이사는 "기존 IP 카메라의 불편함을 해소해 누구나 손쉽게 설치·이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영상이 확인 가능하다"며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파손이나 도난 위험에서도 안전하며 저장공간에 대한 부담 없이 모든 영상을 저장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NHN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코'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페이코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다양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양성운 기자 ysw@



하태년(좌) NHN엔터테인먼트 미디어기술랩 이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NHN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열린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IP 카메라 '토스트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HN엔터 제공

SKT, '스마트홈'으로 사물인터넷 속도 낸다

스마트홈 인증 아파트 협약



SK텔레콤이 아파트에 스마트한 플랫폼을 적용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16일 정우건설산업과 똑똑한 아파트 기틀 마련을 위한 '스마트홈 인증 아파트'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마트홈 인증 아파트란 아파트 내 홈네트워크를 SK텔레콤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도어락, 가스밸브차단기, 에어컨 등을 스마트폰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 아파트다.

SK텔레콤은 이외에도 하반기에 분양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오피스텔 414가구와 인천시 논현동의 테라스하우스 방식 아파트 320가구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봉담오피스텔에는 스마트홈서비스와 연동된 도어락, 가스밸브차단기, 에어컨 등 5종이 설치된다. 인천 아파트에는 5종 외에 보일러와 계량기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양한 기기를 설치한다.

고객들은 스마트홈 연동 기기를 SK텔레콤 스마트홈 앱 하나로 제어 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SK C&C, IBM과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 협력

SK C&C는 16일 워커힐 호텔에서 박정호 SK C&C 사장과 제프리 알렌 로다 한국 IBM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제휴 협약을 16일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IBM의 클라우드에 SK C&C가 보유한 공공, 금융, 통신, 제조, 서비스 등 산업별 ICT서비스·솔루션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향 산업별 맞춤형 IaaS(Infra as a Service)·PaaS(Platform as a Service)·SaaS(Software as a Service)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SK C&C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ICT 시장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수요를 리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업들이 별도의 개발 환경 구성 없이도 SK C&C의 IaaS·PaaS·SaaS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아태 지역 시장 등 글로벌 어디에서든 동일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과 시스템·서비스 운영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지역 명소 한눈에 찾아주는 T맵

SK플래닛 '거미줄 프로젝트' 출시

SK플래닛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은 1800만 회원 빅데이터와 13년간 축적된 교통정보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전국 주요 명소 추천 서비스 '거미줄 프로젝트'를 16일 출시했다.

T맵은 월 800만 사용자, 월 1억 7000만여 건의 경로안내 빅데이터로 서울시 동 단위 8개 행정구역과 군산·안동·춘천 등 12개 도시의 주요 인기 맛집과 여행지를 선정하고,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용자들에게 연관 목적지 정보를 분석해 관계 지도를 제공한다.

예컨대 T맵을 통해 군산시 '이성당' 빵집을 검색하고 방문한 사람은 '히로쓰 가옥', '근대역사박물관' 등을 찾았다라는 통계자료를 통해 여행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 인기 관광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개성공단 공동위 재개… 입주기업 촉각

남북 대표단, 1년만의 협의
임금인상·3통문제 등 논의
"소통의 시작, 긍정적 시그널"


캡션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오른쪽)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16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남북 대표단이 1년 1개월여만에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노동자 임금·근로여건 문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원, 로만손, 좋은 사람들, 재영솔루텍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대표단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등 문제해결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양측이 최저 임금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벌이다 1년 1개월 만에 대화채널을 연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면서 "양 정부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과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입주 기업 다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문제는 늦춰지길 바란다"면서도 "지극히 기업 입장에서의 단편적인 판단일 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 지연되거나 중단됐던 개성공단 발전 정상화 방안이 논의돼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과 함께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개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문제는 북측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수정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는 방침을 2월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합의없이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임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통지문 수령도 거부하고, 남북이 임금 인상 방식을 놓고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한편 이날 남북 경협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재영솔루텍은 전일 대비 0.87% 오른 1730원에 거래됐다. 로만손은 0.56% 오른 1만7950원, 좋은 사람들은 1.40% 상승한 2535원에 마감했다. 반면 신원은 0.55% 하락한 1795원, 인디에프는 1.17% 하락한 2530원에 거래됐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관세청, 동대문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동대문 시장의 전경. 총 5곳의 업체가 동대문을 입지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신청했지만 관세청은 1곳도 선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면세점 선정 기준, 대기업 편향적"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협회)가 정부의 대기업 위주 면세점 허가를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다. 최승재 회장은 "최근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동대문을 입찰에서 떨어뜨린 정부의 선정 기준에 의문이 생긴다"며 "이는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운영을 장려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협회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혜를 소수 대기업에게만 면허 제도를 통해 몰아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구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정책을 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런 면세점 정책으로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돈을 쓰도록 유도해 관광콘텐츠를 약화시킨다"며 "일본만 하더라도 골목상권의 편의점·약국 등의 미니 면세점이 2만개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소상공인 면세점을 운영해 지역경제로까지 관광사업의 영향이 확대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동대문 상인은 "기준 자체가 돈이 많은 기업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들었다. 상품 판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대기업에 주고 메르스 사태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해서 살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했다.

지난 10일 관세청이 허가를 내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3곳은 HDC호텔신라, 한화갤러리아, 하나투어 SM면세점 등이다. 이들 세 기업은 용산·여의도·서울 인사동에 면세점 입지를 정했다.

HDC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으로 지난해 각각 4조4773억원, 2조908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매출 3854억원, 자본총계 4245억원의 중견기업이다.

동대문 시장에는 2013년 기준 2만7955명의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다.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 키이스트, 그랜드 관광호텔, 동대문소상공인연합회, 한국패션협회 컨소시엄, 동대문24면세점 등 6곳이 동대문을 면세점 입지로 정했었다. /김성현기자 minus@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선임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롯데도 장악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신 회장은 한국롯데에 이어 일본롯데의 사업도 책임지게 됐다.

앞서 일본 롯데홀딩스는 15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참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신동빈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신 회장은 이날 주요계열사 사장단회의를 통해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겸허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한국과 일본의 롯데사업을 모두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한편 리더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가족·연인과 '삼시세끼' 체험해 보세요

현대百, 26일까지 기획전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17~26일까지 tvN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삼시세끼' 특별 기획전을 미아점과 부천 중동점 등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전은 백화점 개장 시부터 폐점 시까지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가족·연인이 백화점에서 '삼시세끼' 방송에 나온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백화점은 '멧돌 커피'를 비롯해 강원도 정선의 텃밭을 구현해 놓은 '유기농 라이프 체험장'에서 이식기를 이용해 모종 이식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소비심리 '위축' 유통업 '흔들'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 조사

소매유통업 경기가 3분기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울과 6大 광역시 944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쇼핑은 108, 백화점은 90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인터넷쇼핑은 알뜰 소비성향 지속과 모바일 쇼핑시장의 급성장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백화점은 메르스 사태로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방문객수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체들은 3분기 예상되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37.4%)을 꼽았다. /박상길 기자



첫 출하 '여주햅쌀' 판매 농협유통(대표 조영조)은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경기 여주에서 올해 첫 수확한 '여주햅쌀'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유통 제공



“와인, 탄생월에 따라 골라먹자” 와인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날(대표 박재범)이 탄생월에 따라 골라먹는 별자리와인 ‘투웰브사인즈(12signs)’ 12종을 16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12개의 별자리를 모티브로 해 각 별자리가 지닌 메시지와 디자인을 담은 캘리포니아산 캐주얼 와인이다. /금양인터내셔날 제공

오뚜기, 짜왕에 맞선다

이달 말 신제품 ‘진짜장’ 출시
대형마트서 대대적 시식행사



오뚜기(대표 이강훈)가 라면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농심 ‘짜왕’에 맞서 새로운 짜장라면을 선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이달 말 ‘진짜장’이라는 이름의 프리미엄급 짜장라면을 출시한다. 초반 150만 개의 물량을 준비하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식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진짜장’은 이름처럼 짜장의 진한 맛으로 짜장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쫄깃한 면발과 잘 숙성된 춘장과 양파 등을 직화로 볶아 맛과 향을 살리고 건더기도 기존보다 풍부하다.

가격은 북경짜장(편의점 기준 850원)보다 높지만 짜왕(1500원)보다는 저렴한 선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에는 이미 ‘북경짜장’이라는 짜장라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미미하다. 농심에 이어 라면업계 2위인 오뚜기는 짜왕의 돌풍을 ‘진짜장’으로 막고 시장 점유율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 따르면 올 1분기 오뚜기의 라면 시장 점유율은 17.6%였다. 진라면과 참깨라면 등의 선전 속에 2013년 14.1%이던 점유율은 지난해 16.2% 등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농심 짜왕 출시 후 오뚜기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 오뚜기의 점유율은 4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6.7%를 기록했다.

농심 짜왕은 출시 한 달 만에 100억원 어치(공장 출고가격 기준)가 팔리면서 라면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5월 라면 매출 순위에서 짜왕은 신라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 10년간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삼양라면’의 톱5 체제 구도를 변화시켰다.(닐슨코리아)

업계 한 관계자는 “오뚜기가 시장 경쟁에서 밀리면서 짜왕과 같은 프리미엄급 짜장라면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 같다”며 “오뚜기의 짜장라면 출시는 라면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을 불러와 프리미엄 라면 시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CJ, 김치유산균 개발 ‘과학기술포장’ 수상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지난 15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제 18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세계 최초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CJLP133(이하 CJLP133)’으로 ‘과학기술포장’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확산에 기여한 연구자를 발굴·포상해 기술개발(R&D)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는 상이다.

17일 단 하루, 시원한 빙수가 ‘반값’

뚜레쥬르, 우유빙수 할인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의 뚜레쥬르가 17일 단 하루 동안 우유 빙수 ‘스노우러빙’ 전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다고 16일 밝혔다. 단 일부 매장은 제외된다.

행사 당일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에는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빙수 구매 시 빙수를 무료로 증정하는 스탬프 카드와 차후 사용 가능한 빙수 2000원 할인 쿠폰 등도 지급한다.

“셀프뷰티 뜬다”… 국내·글로벌 업체 각축전

메이크온·튠에이지 등
뷰티 디바이스 급부상

#직장인 한 모씨(여·28)는 최근 홈쇼핑에서 30만원대의 얼굴 마사지 기기를 구매했다. 뷰티 기기값은 비싼 편이지만 매번 전문 숍에 가서 관리받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조사 전문 클라인앤컴퍼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전체 스킨케어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론칭한 ‘메이크온’은 현재 아리따움 직영 5개점을 비롯해 올리브영 명동 본점, 왓슨스(이대·신림), 면세점(롯데 소공동·신라)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아모레퍼시픽몰·직영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판매 중이다.

특히 올리브영 명동 본점과 롯데 소공동 면세점, 아리따움 가로수길점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지난 4월에는 대표 제품인 ‘클렌징 인핸서’의 색상 2종을 추가하며 진동 클렌저 구색을 확대했다.

LG생활건강도 방판과 홈쇼핑에서 ‘튠에이지’를 판매해 지난해 연 매출 100억원 목표를 달성했다.

이튠 지그재그 마스카라는 홈쇼핑 판매 방송에서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인기에 힘입어 3월 업그레이드 버전도 출시됐다. 또 이달 클렌징 미용기기 ‘튠에이지 듀얼 스핀 스파’를 선보였다.

K-뷰티가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자 글로벌 업체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로레알 계열의 ‘클라리소닉’은 내달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여는 뷰티 디바이스 팝업스토어에 타 브랜드와 함께 입점된다. 또 17일에



는 얼굴부터 보디까지 사용 가능한 클렌징 디바이스 ‘스마트 프로파일’을 출시한다.

필립스코리아는 기존 제품인 진동 클렌저 비자퓨어와 올해 출시한 ‘비자케어’ ‘루메아 에센셜’ 등을 함께 묶어 ‘스마터 뷰티’라는 브랜드로 지난 4월 재정비했다. 다음 달 말까지 AK프라자 수원점에서 팝업스토어도 전개한다.

뷰티 디바이스는 비싼 가격 탓에 소모품은 아니지만 집에서 관리하는 셀프 뷰티 열풍에 맞물려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나뭇잎 모양 ‘바나나 먹은 감자칩’ 출시

롯데제과, 신제품 선봬



롯데제과(대표 김용수)가 짭짤한 감자칩에 바나나맛 양념 가루를 섞은 ‘바나나 먹은 감자칩’을 16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짭짤한 감자칩에 달콤한 국내산 아카시아 꿀과 향긋하고 상큼한 바나나맛 양념 가루를 더한 스낵이다. 튀기기 전 오븐에 굽는 과정을 추가해 감자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동시에 지방 함량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스낵 모양이 나뭇잎처럼 길쭉하고 볼륨감이 있고 표면에 기포처럼 동그란 모양이 퍼져 있어 감자칩의 바삭한 식감이 도드라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뽀통령 ‘뽀로로’… 해외서도 통했다

팔도 ‘뽀로로 음료’
상반기 수출 80억



팔도(대표 최재문)는 상반기 ‘뽀로로 음료’의 해외 판매량이 지난해 1년 치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1~6월 팔도 ‘뽀로로 음료’의 해외 판매금액은 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1% 신장했다.

지난 한해 해외 판매금액인 74억원을 6개월 만에 돌파한 것이다.

지난 2010년 3억원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5년 만에 50배 이상 증가했다.

뽀로로 음료는 지난 2007년 중국을 시작으로 현재 인도네시아·몽골·미국·러시아 등 총 3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동안 총 5800만개가 수출됐으며 금액이 220억원에 달한다.

/정은미 기자

“캄보디아에 희망을”

KT&G, 대학생 봉사단 파견

KT&G(대표 민영진)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27일까지 봉사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KT&G복지재단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20명과 경찰대학교 재학생 10명, 지난 5월 KT&G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캄보디아 희망특파원’ 10명을 포함해 총 4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여름 휴가철 식중독 경보

상온에서 식중독균 100배↑ 아이스박스·팩 등 활용할것 구토 등 증상땐 병원 찾아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은 식중독사고가 많은데 특히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에는 음식물을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식중독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온도가 20도 이상인 여름철날씨에 상온의 음식을 보관할 경우 식중독 세균번식이 2~3시간 만에 100배로 증가한다.

차량 트렁크 보관 시에도 외부온도 보다 6도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 원인에 따라 증상이 차이가 난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감염형 식중독의 경우 음식물 섭취 후 수분에서 72시간 이내에 구토나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중독은 보통 1주일 이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치료는 주로 장 운동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 투여나 설사, 구토에 의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경구나 정맥주사를 통해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 주는 등의 치료법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치료 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여름 휴가 대비 식중독 예방에 따르면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에서는 식 재료를 운반·보관할 때 아이스박스·팩 등을 이용해 0~10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과일과 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보관해야 한다.

참튼튼병원 구로지점 박찬익원장은 "여름휴가철 시기인 7,8월 실온에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식중독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라며 "적절한 예방법과 함께 잘 대비를 하면 식중독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만약 증상이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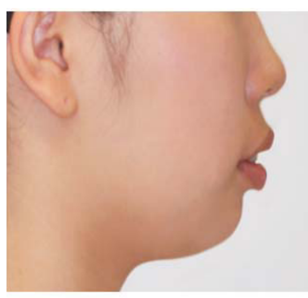
'돌출입' 수술 없이 교정만으로도 치료 가능

닥터 Q&A



송정우 원장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대한소아치과학회 정회원
대한심미치과학회 정회원
RWISO(Roth Willams International Society of Orthodontists) 정회원 – Roth Williams course 수료 / RWKSO 정회원



Before



After (1년 11개월 후 치료종료)

Q. 돌출입도 수술 없이 치아교정만으로 치료 가능한가요?

A. 먼저 답을 드린다면 돌출입도 수술 없이 치아교정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돌출입은 앞니의 위치가 앞으로 밀려 나와서 생기는 부정교합입니다.

보통 부정교합의 가장 큰 원인은 치열 형성에 필요한 잇몸공간의 부족입니다.

이 경우 치열이 불규칙해져 덧니가 생기기도 하지만 앞니가 앞으로 밀려서 돌출입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돌출입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앞니의 위치와 각도를 적절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치아교정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며 치료 결과 또한 심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 모두 가장 좋습니다.

다만 돌출입 치료에서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돌출입을 가진 경우 얼굴이 길어지면서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는 거미스마일과 무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교정 장치로 교정력을 전달하기 힘든 잇몸 깊은 부위의 돌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잇몸뼈나 턱뼈를 절개해 잇몸 안의 치아들과 같이 이동시키는 수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악수술이나 돌출입수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한두 달 안에 외모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술 전후 치아교정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치아교정보다 전체적인 치료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킬본(KILBON)' 장치를 이용해 잇몸돌출의 골격성돌출입을 수술이 아닌 치아교정만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킬본은 견고한 형태로 각 치아와의 결합력을 강화해 강화된 교정력과 함께 앞니의 전체적인 이동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는 골격 형태의 변화까지 꾀하는 장치입니다. 치아만 당겨져 옥니가 되거나 치아와 치근이 별도로 이동해 치근이 짧아지는 등 부작용 발생도 거의 없습니다.

수술적치료는 한달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반면 킬본은 설측교정으로 교정장치가 외부에 보이지 않으며 장치로 인해 돌출입이 더 부각될 염려가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또 돌출입을 먼저 해결한 후 치아를 배열하는 선돌출입치료 방식으로 빠른 돌출입 해소가 가능합니다.이러한 교정장치의 발달은 치아의 교정치료 한계를 넓히고 수술만 가능했던 골격성 돌출입도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TGI프라이데이스 제공

취향대로 즐기는 '아메리칸 바비큐 플래터'

17일~9월 30일 한정 판매 美 남부 스타일 DIY 메뉴

정통 아메리칸 캐쥬얼 다이닝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스(대표 노일식)가 17일부터 취향대로 만들어 먹는 메뉴 '아메리칸 바비큐 플래터'를 3만9500원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메리칸 바비큐 플래터는 다양한 재료들을 한 접시에 담아 고객이 직접 구성해 먹는 미국 남부 스타일의 DIY 콘셉트다. 감자튀김, 스테이크, 립과 다양한 야채들을 모닝롤에 조합해 먹으면 된다.

메뉴에는 TGIF의 대표 립 메뉴인 점보립(130g)과 패밀리레스토랑 최초로 진공 포장한 쇠고기를 저온의 물속에서 장시간 초벌 조리한 후 그릴에 굽는 방식인 수비드(Sous-vide) 스테이크(부채살 130g), 감자튀김, 토마토 살사 등 다양한 재료들로 구성된다.

9월30일까지 전국 TGIF 매장에서 판매되며 해당 메뉴 주문 시 선착순 1만 명에게는 신개념 초콜릿 디저트 핸디카페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매주 일요일 TGIF에서는 엘포인트 10% 차감을 통해 메뉴 50% 할인 이벤트를 함께 운영한다.

TGIF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아메리칸 바비큐 플래터'는 다양한 재료들을 모닝롤에 고객이 직접 입맛에 맞춰 즐길 수 있는 DIY 메뉴로 먹는 방식에 재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상명대 '뉴욕 국제디자인 초대전' 수상



상명대 양종훈(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가 한국콘텐츠학회 '2015 뉴욕 국제디자인 초대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얼굴(FACE)'을 주제로 한 이번 초대전에 총 230여개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양교수는 '미소'라는 작품으로 우수작품상을 받았다.

평소에도 항상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양교수는 "사진 속의 인물들이 사는 곳은 다르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향해 짓는 그 한결같은 미소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전시회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뉴욕의 SVA Flatiron Gallery에서 개최된다.

/복현명기자 hmbok@

쫄깃쫄깃, 고래밥이 젤리로 '젤리밥'



오리온(대표 강원기)이 대표적인 과자 제품인 고래밥의 바다 동물 캐릭터를 살려 '젤리밥'을 16일 출시했다. 가격은 편의점 기준으로 58g에 1000원이다.

젤리밥은 젤리와 고래밥의 합성어다. 고래밥의 인기 바다 동물인 고래·상어·거북이·문어 등 6가지 모양에 딸기·사과·오렌지·파인애플 등 4가지 과즙을 더해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아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너무 질기지 않으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star bag

5년 만에 소속사 새 둥지



'국민 MC' **유재석**이 이국주·정형돈에 이어 FNC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

FNC 측은 "유재석은 착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FNC의 비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로카르노영화제 심사위원



배우 **문소리**가 다음달 5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68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 심사위원에 위촉됐다고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16일 전했다.

문소리는 "세계적인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규 2집 음원차트 석권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규 2집 타이틀곡 '리멤버(Remember)'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점령했다.

16일 자정 공개된 에이핑크의 신곡 '리멤버'는 멜론, 엠넷, 네이버뮤직, 몽키3, 올레뮤직, 지니 등 6개 주요 음원 사이트에 진입해 1위를 차지했다.





'계춘할망' 촬영 마쳐

배우 **윤여정, 김고은**이 지난 9일 영화 '계춘할망'(감독 창감독)의 촬영을 마쳤다.

'계춘할망'은 12년 전 잃어버린 손녀 딸이 기적적으로 제주도로 돌아오면서 시작된 계춘할망과 손녀의 어색한 동거를 그린 영화다. 후반 작업을 거쳐 올해 중 개봉 예정이다.



영화 '암살' **이 정 재**

'도둑들'은 이정재(42)의 필모그래피에서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이다. 어떤 배우든 본인만의 매력을 충분히 살릴 기회를 선사하는 최동훈 감독과의 첫 만남이었다. '도둑들'의 뽀빠이를 통해 이정재는 자신의 숨겨진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 보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신세계' '관상' '빅매치' 등 쉼 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어려운 역할, 더 잘 해내고 싶었어요"

30년대 두 얼굴의 임시정부대원
쉽지 않은 역할 사명감으로 선택
목소리 톤 바꾸고 체중 감량까지
관객에게 질문 던지는 인물이길

'암살'은 이정재가 최동훈 감독과 3년 만에 다시 만난 작품이다. '도둑들'의 성공이 있었기에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시나리오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문제는 캐릭터였다. 이야기는 재미도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맡아야 하는 역할 만큼은 유독 쉽지 않았다. '도둑들'보다 더 입체적인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은 보도자료에 나온 설명을 빌리면 '두 얼굴의 임시정부대원'이다. 김구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경무국 대장으로 친일파 작전을 위해 안옥윤(전지현), 속사포(조진웅), 황덕삼(최덕문)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염석진에게는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영화 속 갈등에 본격적인 불을 지핀다.

이정재가 '암살'을 선택한 것은 사명감 때문이다. "시나리오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좋은 영화가 나올 것 같은 시나리오라는 예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내가 연기해야 할 역할이 염석진이라는 사실 때문에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염석진 또한 우리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이 역할을 정말 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촬영에 들어가서부터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먼저 목소리 톤을



바꿨다. 매일 촬영마다 발성 연습을 하며 염석진만의 목소리를 만들어갔다. 조국을 잃어버린 1930년대의 시대적인 고뇌를 표현하기 위해 살도 뺐다. 최동훈 감독 특유의 맛깔스러우면서도 의미 있는 대사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대사를 읽고 또 읽었다. 어떤 것이 가장 '염석진스러운' 모습인지를 찾아가는 고된 과정이었다.

최동훈 감독과의 두 번째 작업은 '도둑들'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다. 주제의 무게감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정재도 촬영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촬영이 끝난 뒤에는 공허함도 많이 남았다. "솔직히 작품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만큼 애착도 컸고요. 촬영이 끝난 뒤에는 많이 공허하더라고요. 하지만 '암살'로 생긴 공허함이기에 주변에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촬영 끝난 뒤에도 감독님을 자주 만났어요(웃음)."

물론 영화에는 최동훈 감독 특유의 장르적인 재미도 곳곳에 녹아 있다. 그럼에도 결말에서는 전작과 다른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진다.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역사의 상처를 다룬 만큼 개봉 이후에는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심에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이 있다.

"스스로 잘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제가 잘 해야 다른 인물들의 캐릭터도 보다 강하고 명확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염석진이 관객들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
사진/손진영 기자 son@

연극 '연애의 목적' 올래홀에 전용관 마련

오늘부터 오픈런 무대

연극 '연애의 목적'이 전용관을 마련하고 오픈런으로 관객을 만난다.

연극 '연애의 목적'은 엇갈린 타이밍으로 헤어졌지만 긴 시간동안 서로를 잊지 못하는 두 남녀의 순애보를 그리고 있다. 코믹적 요소와 함께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학로 대표 로맨틱 코미디로 자리잡았다.

오는 17일부터 대학로 올래홀 전용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연애의 목적'은 넘치는 매력으로 여성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최



연극 '연애의 목적' 공연 모습.

지성 역에 김주일·김성준·임종완이 캐스팅됐다. 통통 튀는 캐릭터로 여성 관객의 폭풍 공감을 얻는 구수애 역은 강민정·최혜정·이시원이 맡는다. 엉뚱하고 귀여운 천국 역은 김윤희·권혁선·박민규가 나선다.

기획사 악어컴퍼니는 '연애의 목적' 전용관 오픈 기념으로 개막일 관람객 전원에게 개업떡을 증정한다. 7월에는 관람료가 1만원이다. 문의: 02) 764-8760

/김민준 기자 mjkim@



TAL
탈
<티켓예매>
1644.8609
인터파크, 옥션티켓
2015년 7월 18일(토) ~ 8월 30일(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 화~금 7:30, 토 3시/7시, 일 3시
티켓: 일반 30,000원, VIP 50,000원 (단체문의 02.2215.3636)
주최 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
주관 (주)에스알그룹 SR GROUP Entertainment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STAFF 총감독 최소리 기획 윤경희 음악감독 최재우 조명감독 오정섭 음향감독 조형재 무대감독 강성찬, 김홍한 컴퍼니매니저 전유신 디자인 정은하
국가대표태권도시범단장 이춘우 감독 정재환 경영지원 최영희 홍보 김성겸 티켓 권경현 공연 및 단체문의 02.2215.3636 www.thetal.com
<티켓예매> 1644.8609 인터파크, 옥션티켓

키덜트 향수 자극하는 액션 어드벤처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픽셀

기발한 상상·귀여운 악당 영웅이 된 루저들 이야기

1980년대 정서 자극 충분 전형적 스토리는 아쉬워



어른이지만 아이이고 싶은 사람들. 키덜트(kidult)는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트렌드다. 어릴 적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장난감이나 게임을 어른이 된 뒤 다시 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 그때의 추억과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마음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각박한 현실을 잊기 위함이다. 어른이 되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던 믿음이 깨진 순간, 과거는 추억과 향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고전 아케이드 게임 캐릭터를 소재로 한 영화 '픽셀'의 지향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홀로 집에' '미세스 다웃파이어'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등 가족 관객을 위한 영화를 주로 만들어온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의 신작인 만큼 영화는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길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너드(nerd, 괴짜라는 뜻. 영화에서는 '덕후'로 번역됐다)'와 '키덜트'의 문화다. 1980년대의 정서를 자극하는 장면들도 눈에 띈다. 영화가 이 시대에 유년 시절을 보낸 30~40대 관객을 겨냥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영화는 루저들의 이야기다. 샘(아담 샌들러)을 비롯한 주인공들은 아케이드 게임에 빠져 즐거운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별볼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키덜트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외계인의 침공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한다. 나사(NASA)가 외계로 보낸 아케이드 게임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외계인은 팩맨, 갤러그, 동키콩, 지네, 스페이스 인베이더 등 아케이드 게임 캐릭터로 나타나 지구 침공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루저는 지구를 지킬 영웅으로 거듭난다.

힘든 현실을 피해 과거를 그리워하는 주인공들은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캐릭터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배우들이 보여주는 코믹한 호흡이 캐릭터들에 호감을 불어넣는다. 마돈나, 홀 앤 오츠, 그리고 '스타워즈' 등 80년대 문화 아이콘도 끊임없이 언급된다.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으로 재탄생한 아케이드 게임 캐릭터들의 모습도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기발한 설정을 전형적으로만 풀어낸 것은 아쉽다. 탄탄한 드라마보다 CG를 이용한 볼거리에 치중한 것도 눈에 밟힌다. 하지만 그 시절 오락실에서의 추억이 있다면 '픽셀'은 특별한 작품이 될 것이다. 100원 짜리로 오락실에서 보냈던 시간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12세 이상 관람가.

TV 하이라이트

출사여행을 떠난 동갑내기 두 남자

◆ MBC '나혼자산다'

금요일 오후 11시 15분



동완과 중완은 사진 공모전을 위해 출사여행을 떠난다. 공모전 1등을 위해 열정으로 뭉친 두 남자는 바닷가에서 물놀이는 뒷전이고 사진 촬영에 사활을 건다. 동갑내기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남자의 여행은 야간 바베큐 파티로 정점을 찍는다. 민혁은 25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생애 처음으로 손수 미역국을 조리에 도전하지만 생각보다 불어나는 미역들의 습격 앞에 좌절하고 만다. /정리=하희철 기자 bbuheng@

◆ SBS '정글의법칙 in 얍'

금요일 오후 10시



남자들만 섬에 남겨져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올드보이들은 씨스타 다솜의 등장으로 화색을 되찾고 '무인도 회춘' 효과를 얻게 된다.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 20분



가요제에서 함께 할 팀을 나눈 6명의 멤버들은 각자의작업실에서 첫 만남을 갖는다. 유재석은 박진영과 함께 이번 가요제를 댄스의 향연으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진다.

◆ SBS '런닝맨'

일요일 오후 6시 10분



'짐승돌' 2PM이 '짐승남' 김종국과 한판 승부를 펼친다. 멤버들은 '우리집'으로 오라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도시 곳곳을 누비다 대반전의 인물과 마주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8일 (토)	12시 10 국악한마당 15시 15 한국인의 밥상 (재) 16시 10 징비록 (44회) (재) 18시 00 동행 19시 10 다큐 공감 20시 00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1시 40 징비록 (45회) 23시 40 특선 앙코르 드라마 고맙다 아들아 (1·2회)	11시 20 후계자 (2회) (재) 12시 40 개그 콘서트 (재) 14시 15 슈퍼맨이 돌아왔다 17시 5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43회) 21시 15 연예가 중계 22시 2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회) 23시 30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12시 10 무한도전 스페셜 15시 50 쇼! 음악중심 17시 00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5 무한도전 (437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27회) 22시 00 여왕의 꽃 (37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4시 30 런닝맨 (재) 15시 40 아빠를 부탁해 (재)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5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24시 10 심야식당 (5·6회)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 <정계임의 손맛 가득한 밥상> (종합1~5) (재)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7시 50 장학퀴즈 (962회) 18시 40 한국기행 (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미시시피 버닝>	11시 30 비정상회담 (54회) (재) 14시 35 냉장고를 부탁해 (35·26회) (재) 18시 30 사랑하는 은동아 (15회) 19시 40 JTBC 뉴스룸 20시 30 사랑하는 은동아 (16회) 21시 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4회) 23시 00 비정상회담 (54회) (재) 0시 2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11회)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9일 (일)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10회) 14시 10 2015 KOVO컵 프로배구대회 16시 10 징비록 (45회) (재) 18시 00 열린 음악회 21시 40 징비록 (46회) 22시 30 리얼 정치 버라이어티 여야 택시 24시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3시 1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회)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50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44회) 21시 20 개그 콘서트 (805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어송포유 (1회) 0시 55 이웃집 찰스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27·28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28회) 22시 00 여왕의 꽃 (38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경찰청 사람들 2015 (재)	12시 10 너를 사랑한 시간 (7회) (재) 13시 15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8회) 23시 10 SBS 스페셜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백 투 더 퓨쳐 2>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갯마을>	13시 20 썰전 (124회) (재) 16시 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4회) (재) 17시 15 냉장고를 부탁해 (35회) (재) 19시 40 JTBC 뉴스룸 20시 40 닥터의 승부 (184회) 21시 45 김제동의 톡투유 (12회) 23시 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8회)

J리그 심판 착오… 선수들 불러 1분간 더 뛰어

스포츠 주간 해프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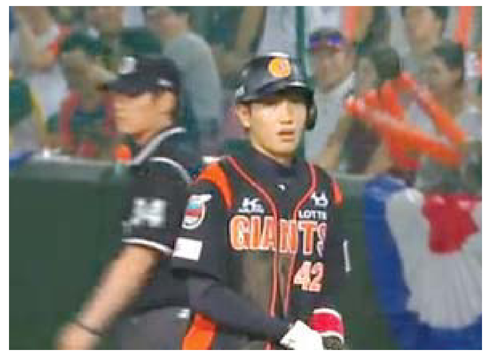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심판의 착오로 하프타임 때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을 그라운드로 다시 불러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5일 일본 고후 야마나시 중앙은행 스타디움에서 열린 J리그 반포레 고후와 베갈타 센다이와의 경기에서 주심을 맡은 이에모토 마사아키(42)는 전반전 종료 휘슬을 분 뒤 이것을 번복하고 다시 경기를 재개하는 사고를 쳤다. 주심과 부심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마사아키 주심은 전반 종료를 앞두고 무선마이크를 통해 그라운드 밖에 있던 부심에게 추가 시간이 0분 주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정작 부심은 '추가시간 1분'이라는 표시판을 들어보였다. 주심은 이 표시를 보지 못하고 전반 45분이 되자 그대로 종료 휘슬을 불었다. 양팀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나 감독들은 추가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데 항의했다.

결국 주심은 부심들과 회의를 열고 규정대로 주어지지 않은 추가시간 1분을 채우기로 결정했다. 이에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선수들은 다시 그라운드로 불려나왔고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했다. 20초가량 지난 뒤 다시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다.





15일 일본 고후 야마나시 중앙은행 스타디움에서 열린 J리그 반포레 고후와 베갈타 센다이와의 경기에서 이에모토 마사아키 주심(맨 왼쪽)이 종료 휘슬을 분 뒤 다시 추가시간을 주기 위해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왼쪽). 1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5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 NC다이노스의 경기에서 삼중살이 연출되고 있다(가운데). 14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2015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김대륙(23)이 본헤드플레이로 허무하게 아웃당한 뒤 허탈해하고 있다. /J리그 공식 유튜브·MBC스포츠 캡쳐

일타삼피

프로야구에서 삼중살(세 타자가 한꺼번에 아웃되는 것)이라는 명장면이 연출됐다.

1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5타이어뱅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NC의 공격인 9회초 타석에는 용덕한이 선두주자로 나섰다. 용덕한은 넥센 마무리 투수 문성현과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으로 진루했다. 모창민이 후속 타자로 나서 내야를 가로지르는 안타를 기록했다. 무사 1·2루 상황에서 타석에 조영훈이 나섰다. 문성현의 세 번째 공을 때렸지만 타구는 곧바로 2루수 서건창에게 잡혀 아웃됐다. 그리고 베이스를 떠나있던 2루 주자 용덕한과 1루 주자 모창민까지 차례로 아웃되면서 그대로 공수교대를 하게 됐다.

이날 나온 삼중살은 한국 프로야구 통산 59번째다.

새내기의 본헤드플레이 신고식

올해 프로야구에 데뷔한 롯데 자이언츠의 김대륙(23)이 황당한 주루 플레이로 프로 첫 본헤드플레이 신고식을 치렀다.

14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3-3으로 맞선 9회초 1사에 김대륙은 안타를 친 김주현의 대주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대륙은 황당한 주루플레이로 대주자로서의 임무에 실패했다. 다음 타자인 짐 아두치가 평범한 좌익수 뜬공을 쳤다. 누가 봐도 아웃이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김대륙은 전력 질주하며 2루를 지나 3루까지 내달렸다. 평범한 뜬공이었고 1사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드의 상황을 보며 주루플레이를 해야했으나 아웃카운트를 1사가 아닌 2사로 착각해 3루까지 달린 것이다.

한화 수비는 뒤늦게 1루로 돌아가는 김대륙을 아웃시켰다. 김대륙은 전력을 다해 돌아갔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결국 김대륙의 본헤드플레이로 롯데는 공격 기회를 한화에게 넘겨야했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주말 수원서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열기 오늘 홈런레이스 펼쳐

2015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이 18일 오후 7시 경기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드림 올스타(삼성·SK·두산·롯데·KT)와 나눔 올스타(넥센·NC·LG·KIA·한화)의 대결로 열린다.

역대 올스타 팬투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운 '국민타자' 이승엽(39·삼성)을 비롯해 선수단 투표에서 1위에 오른 이호준(39·NC), 임창용(39·삼성) 등 베테랑 선수들과 박정진·권혁·정근우(이상 한화), 강민호(롯데), 정우람(SK), 구자욱·야마이코 나바로(이상 삼성), 김민성·김하성(이상 넥센), 에릭 테임즈(NC) 등이 팬심을 얻어 올스타 무대에 선다.



지난해 프로야구 올스타전 MVP 박병호.

경기에 앞서 열리는 번트왕 대결에는 김상수(삼성)·김강민(SK)·박경수·이대형(KT)·김하성·박동원(넥센)·김태군(NC)·이용규(한화)가 출전한다.

올스타전 하루 전인 17일에는 홈런레이스와 퍼펙트 피처 대결이 펼쳐진다.

드림 올스타 대표로 이승엽·야마이코 나바로·김현수(두산)·황재균(롯데)이 나서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나성범·이호준·테임즈·박용택(LG)이 출전한다.

퍼펙트 피처 대결에는 드림 올스타의 임창용·안지만·정우람(SK)·유희관(두산)과 나눔 올스타의 조상우(넥센)·헨리소사(LG)·해커(NC)·윤석민(KIA)이 참가한다.

/김민준 기자 mjkim@



16일(한국시간) 디오픈 역대 챔피언 대결에서 함께 팀을 꾸린 폴 로리, 아널드 파머, 대런 클라크, 빌 로저스(왼쪽부터)가 우승을 차지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골프 전설' 아널드 파머의 저력

디오픈 이벤트 역대 챔피언 대결서 팀 우승

아널드 파머 팀이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공식 대회명 디오픈) 개막을 하루 앞두고 벌인 역대 챔피언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

16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자선 기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이벤트인 이 대회는 3명 또는 4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4개홀 성적을 합산해 우승팀을 가렸다.

1961년과 1962년 잇따라 디오픈을 제패한 파머(미국)는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 폴 로리(스코틀랜드), 빌 로저스(미국)와 팀을 구성, 4개홀에서 이글 1개, 버디 1개로 3언더파를 기록했다. 이어 로리가 두 번째 홀에서 이글, 네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의 주역이 됐다.

파머팀을 포함한 총 3팀이 3언더파를 적어냈지만 평균 나이가 높은 파머 팀이 우승을 차지해 10만 파운드(약 1억8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파머 팀은 이 상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하희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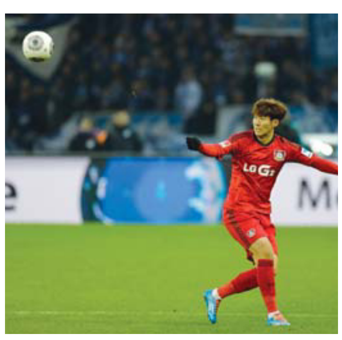
'코리안 듀오' 손흥민·류승우 헛심

레버쿠젠 친선경기서 바젤에 1-2 역전패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사진)과 류승우가 함께 경기에 출전했지만 바젤(스위스)과의 친선 경기에서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레버쿠젠은 16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의 세인트 제이콥 파크에서 열린 바젤과의 친선전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손흥민은 선발출전했지만 아쉽게 공격포인트를 따지 못하고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지난 시즌 브라운슈바이크로 임대됐다가 올시즌 레버쿠젠으로 복귀한 류승우는 후반전부터 카림 벨라라비 대신 그라운드에 나섰지만 마찬가지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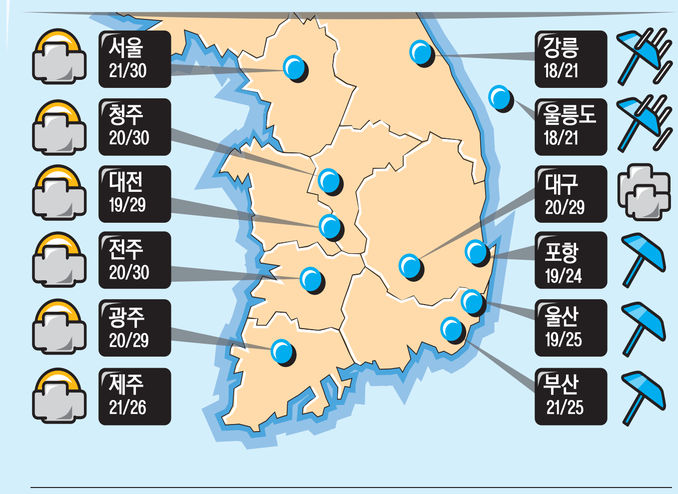
레버쿠젠은 전반 21분 만에 벨라라비의 선제골로 앞섰다. 1분 뒤 바젤의 브릴 엠볼로에게 곧바로 실점해 동점을 허용했다.

/하희철 기자

날씨

7/17 금 일출시각 05:24 일몰시각 19:5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8		
9			3			7	6	1
	8					4	9	
	3		7		2		1	
2								8
	1		5		6		7	
	9	3					4	
1	4	7			9			6
		8	6					

8		4		1	2			
5				4			1	6
		2					4	8
	8	9	4		3			
6								7
			8		9	3	2	
3	2					1		
9	1			5				3
			1	3		9		2

스도쿠 정답

7	6	1	9	4	5	8	2	3
9	5	4	3	2	8	7	6	1
3	8	2	1	6	7	4	9	5
8	3	5	7	9	2	6	1	4
2	7	6	4	1	3	9	5	8
4	1	9	5	8	6	3	7	2
6	9	3	8	5	1	2	4	7
1	4	7	2	3	9	5	8	6
5	2	8	6	7	4	1	3	9

8	6	4	7	1	2	5	3	9
5	9	7	3	4	8	2	1	6
1	3	2	6	9	5	7	4	8
2	8	9	4	7	3	6	5	1
6	4	3	5	2	1	8	9	7
7	5	1	8	6	9	3	2	4
3	2	6	9	8	4	1	7	5
9	1	8	2	5	7	4	6	3
4	7	5	1	3	6	9	8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Dong Pang Ze Shing-ho Enterprise First in Line to Prioritize Sewol-ho Salvaging

<둥팡즈싱호 인양업체가 세월호 인양협상 1순위>

The government has selected Shanghai Salvage of China as priority negotiation enterprise for Sewol-ho on the 15th. This enterprise has taken part in salvaging Doong Pang Ze Shing cruise which has sank last month.

The bidding evaluation standard was set according to the grade total of 100%, 90% technology and 10% cost. In this international bidding, two domestic consortiums, six foreign enterprises and five consortiums was selected. There were two U.S one Netherlands, one Denmark, and two Chinese salvaging enterprises, but the Chinese ranked the top two.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15일 오전 세월호 선체인양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의 인양 제안방법 개념도. 사진 윗줄 왼쪽부터 선체 중량 감소, 인양용 빔 설치, 둘째줄 왼쪽부터 선체 1차 부양, 안전한 지역으로 수중 이동, 셋째줄 왼쪽부터 반잠수식 플로팅 토크에 선적, 선체 인양 및 배수, 넷째줄 왼쪽부터 목포 신항으로 이동, 목포 신항에 육상 거치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세월호 인양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중국 창장에서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 인양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입찰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에 기술점수 90점과 가격점수 10점을 배정했다. 이번 국제 입찰에는 국내 컨소시엄 2개와 외국업체 6곳이 5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 미국 2곳, 네덜란드 1곳, 덴마크 1곳, 중국 2곳 모두 세계적 인양업체들이지만 중국 업체들이 1, 2위를 차지하며 기염을 토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올 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결과 있으나 직장에서 중용을 지키세요

열혈남 1 남자 84년 2월 14일 양력 아침 8시

Q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매트로 '사주 속으로'를 즐겁게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듯하여 흥미롭게 보고 있던 중 제 장래가 궁금하여 상담 의뢰 올립니다. 저는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 한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무역학인데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내고는 있지만 여의치 못 합니다. 올해 2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험을 치면 합격 할 수 있을 까요? 취업이 되어야 결혼도 할 수 있을텐데 나이가 점점 들다보니 걱정입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A 운칠기삼에 덧붙인다면 지구의 점성가들이 굵직굵직한 예언들을 쏟아 냅니다. 예언의 점성술은 예나 지금이나 세계도처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점성술을 활용했고 내로라하는 세계 곳곳의 기업인 경객들도 운세감정을 활용합니다.

미국의 프레드릭 데이비스는 마가렛공주의 운세를 봐준 것이 인연이 돼 영국왕실의 전속 점성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의 단골 고객은 주로 각국의 왕족 정치가나 기업인들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점성술 사주학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운의 기운이 절대적 적용됩니다.

귀하의 수호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현재 운이 수호신을 도와주는 운로에 있으며 월덕귀인(月德貴人)의 상에 생일간(生日干)이 장생궁(長生宮)에 있어서 학문을 즐겨하고 문장이 수려하니 교육자나 공무원의 사주입니다. 운칠기삼안에서 운의 부족으로 시험에 떨어졌으나 2015년 10월 이후 시험 운이 길 선하니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귀하의 성정은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의 형상으로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로 인해 화를 암시하니 2017년 지나면서 직장에서 떠들어대며 윗선의 반대 입장에 서지 말고 늘 묵묵히 일을 하십시오. 중용의 도를 잃고 쟁론이 잦아지면 불리해 집니다.

담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심하여 큰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있는데 생일지(生日支)에 충살(沖殺: 충돌하고 때려맞는 흉함)을 받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듯 액운을 당하므로 2016년 7월을 조심하여 교통사고나 직장에서의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기수양을 하세요.2015년 12월에 만나는 여자로 2016년이 복잡해지니 유의하고 다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7일 (음 6월 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일마다 장애가 많습니다. **60년생** 소신껏 행동하세요. **72년생**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84년생** 처음에는 가망 없어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집니다.

소 — **49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61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73년생** 귀기울여 신중히 대처하세요. **85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호랑이 — **50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세요. **62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74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86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토끼 — **51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3년생** 의지할 곳도 희망도 안보입니다. **75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87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방입니다.

용 — **52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입니다. **64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입니다. **76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합니다. **88년생** 체력관리에 힘쓸 때 입니다.

뱀 — **53년생** 가까운 곳의 나들이는 길합니다. **65년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겠습니다. **89년생** 힘들게 이룬 일일수록 가치 있고 빛나는 법입니다.

말 — **54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6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78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으세요. **90년생** 모든 일에 꾀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양 — **55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67년생** 주위의 얕은 말을 듣고 꺽이지 마세요. **79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91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납니다.

원숭이 — **56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68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80년생** 이성간에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보약입니다. **92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됩니다.

닭 — **57년생** 차근차근 일을 꾸려 나가세요. **6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81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거나 접대를 하세요. **93년생** 금전,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개 — **58년생** 서류상에 이득이 있을 듯합니다. **70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합니다. **82년생** 부부간 가족 나들이에 가정이 화락합니다. **94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입니다.

돼지 — **59년생** 아주 길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1년생**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면 화가 됩니다. **83년생** 부부가 마주대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95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웰다잉을 위한 버킷리스트와 존엄사



최치선의 세상만사

2007년 상영된 '버킷 리스트(Bucket List)'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다.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주연한 '버킷리스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주인공들의 여정을 담고 있다.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며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물론 영화의 감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한부 설정이 훨씬 와 닿지만, '버킷리스트'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하루를 살더라도 원하는 것을 하고 죽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죽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다. '제대로, 잘, 행복하게 죽는 것' '웰다잉'은 이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천에 옮기고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누구나 늙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호스피스와 존엄사문제는 웰다잉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요소다. 호스피스제도가 우리생활에 들어오면 고독사와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고 축복 속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어서다.

다행히 어제(15일)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이다. 이로써 말기 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보다는 호스피스를 선택해 웰다잉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용을 해도 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를 선택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해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은 미국이 43%, 대만 30% 수준이다. 이제 우리도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가정호스피스'도 시행되기 때문에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하면 점차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웰다잉의 또 하나는 존엄사문제다. 지금까지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존엄사'문제는 단순히 환자와 의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즉 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맞선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존엄사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돼 왔고 이제 곧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호스피스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숨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환자의 일기장이나 유언장이 없어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평소 인공호흡기를 통한 수명 연장을 원치 않았다"며 치료 중단을 요구하면 의료진이 이를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지침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모든 병원에 통일된 존엄사 지침이 하루빨리 법제화되길 바란다. 그래야 누구나 인간으로서 진정한 웰다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부장

社說

남북한 경제교류 돌파구 기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을 제시했다. 20년만에 다시 나온 '원칙'이다. 새로운 5대 원칙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와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등 남북한 경제의 동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어서 주목을 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경제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전경련의 설명대로 중국이 G2로 떠올랐고 북한과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경제개발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대외개방 움직임도 괄목할 만하다. 남북한 관계가 지난 2010년 발표된 5·24조치 이후 얼어붙은 사이에 주변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 경제가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체질로 굳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런 변화를 애써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주변의 경제정세 변화를 좀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의 동반발전을 통해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내수부진과 중국 경제의 동요 등 여러 가지 악재에 직면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는 분명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언젠가 짊어져야 할 통일비용도 줄여준다.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돈의 힘'으로 남북한 사이의 장벽도 차츰 허물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유력한 경제단체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단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제는 남북한 당국 사이의 대화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때마침 16일 판문점에서는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다니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교류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장관따라 널뛰는 교육정책에 혼란 가중



기자 수첩

복 현 명 <사회부 기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중국고전 관자(管子)는 '일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제일이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이며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라고 논한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를 발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도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1월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자리에서 "2017학년도 대입부터 인성 평가를 도입하겠다"며 "대입에서 인성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교육시장은 '인성평가 대비' 과정들과 관련 자격증들이 우후죽순 늘어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줬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초·중·고·대학에서 인성 항목을 계량화 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인성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기입하지 않도록 했다.

불과 6개월만에 손가락 뒤집 듯 교육정책을 바꿔 버린 것이다.

황 장관과 교육부의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일선 고교의 교사들 역시 매년 변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지도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한다.

교육정책은 백년을 바라봐야 한다.

장관 임기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로 진정한 대한민국 교육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

돌파



김재현 변호사의 BizLaw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수익률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 반면에 운영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위험요소는 더 많아져서 경영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한숨을 쉰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공포심마저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위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 이런 집중력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다.

돌파(breakthrough)라는 단어가 있다. 돌파란 깨뜨려서 뚫고 나간다는 의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돌파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위기가 극복이 되면 우리는 돌파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돌파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는데,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돌파를 위한 과정의 일부이며 노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

성장과정이 매우 신비한 것이 대나무이다. 대나무를 기르기 위해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일년이 지나도 이년이 지나도 삼년이 지나도 싹이 안나다가 일단 싹이 나면 놀라운 속도로 자라는데 하루에 1미터가 자라기도 한다고 한다. 수년 동안 변화가 없어 보여도 대나무는 땅속에서 자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치 대나무처럼 개인이나 기업에 돌파가 일어나면 폭발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돌파가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사

■ 전남도

△이사관 승진 ▷의회사무처장 임영주 △이사관 전보 ▷도민안전실장 정병재 △부이사관 전보 ▷경제과학국장 최종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윤광수 ▷한국전력공사 지역협력관 서기원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이기환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 윤승중 ▷목포부시장 이재철 ▷광양부시장 신태욱 △서기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태환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박상석 ▷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 심남식 ▷도립도서관장 노래영 ▷나주시 부시장 이기춘 ▷담양군 부군수 홍성일 ▷고흥군 부군수 주순선 ▷영암군 부군수 김양수 ▷완도군 부군수 차주경 ▷총무과 대기 고영윤

■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예산담당관 강희진 ▷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 ▷균형발전담당관 이희준 ▷외교정책과장 김능식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재난대책과장 조돈협 ▷에너지과장 김상환 ▷도서관정책과장 심창보 ▷총무과장 전기송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 ▷국제통상과장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소춘 ▷입법정책담당관 직무대리 차광희 ▷의회사무처 김기상 ▷건설안전과장 직무대리 변영섭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김기승

■ 한국표준협회

△승진 ▷전무이사 임현철 ▷기획전략본부장 김광용 ▷회원홍보팀장 장호성 △전보 ▷인증서비스본부장 전진수 ▷경영기획팀장 성종수

부고

▲ 양화님 씨 별세, 이영철(나창국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이관배(주식회사 동아전력 대표이사), 이임상(중앙일보 티미디어센터 대표이사), 이영찬(마한농협과장), 이영숙, 이영님씨 모친상=16일 오후 3시 5분, 발인 18일 오전 9시 광주역장례식장 2호실(062-264-4444)


New
건배?
Americcino
since 2015
아메리치노 4.9
Original / Sweet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